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1

박영민 외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01 서정 갈래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09쪽

1 O 2 X 3 O 4 O

확인 문제 010~011쪽

1 ③ 2 ② 3 (1) 깨달음 (2) 대조적 4 불빛의 따뜻함

1 이 시에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과는 달리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역설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설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연쇄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이 시에서 '어둠'과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시련 속에서 느낀 희망, 위로, 위안 등을 의미한다.
⑤ 작은 지붕들이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대한 산줄기'와 대비시켰다. '거대한 산줄기'는 '어둠'처럼 고난이나 슬픔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3 (1) 이 시의 1연과 3연에는 시적 화자의 경험, 2연과 4연에는 시적 화자가 경험에서 얻게 된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다.
(2) 이 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희망, 위로, 위안 등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고, '어둠',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4 '불빛의 따뜻함'은 길을 잃고 힘겹게 걸어간 길 끝에서 마주한 희망을 의미하는 시구이다. 이 시구에서는 '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이 '따뜻함'이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소단원 평가 022~023쪽

01 ① 02 불빛의 따뜻함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③

01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산속에서 겪은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 계절과 관련된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시에서는 거리의 변화를 표현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 '거대한 산줄기'라는 자연물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를 묘사하거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리고 있지는 않다.

02 '불빛의 따뜻함'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인 '불빛'이 촉각적 이미지인 '따뜻함'으로 감각이 전이되고 있다.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심상의 종류

시각적 심상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심상 예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 김수영, 「파밭가에서」
후각적 심상	냄새를 묘사하여 표현한 심상 예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촉각적 심상	피부 감각을 포함한, '춥다, 덥다, 시원하다' 등의 전신 감각을 묘사하여 표현한 심상 예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김종길, 「성탄제」
청각적 심상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심상 예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 김동환, 「북청 물장수」
미각적 심상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심상 예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 정지용, 「고향」
공감각적 심상	둘 이상의 감각을 결합하여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도록 표현한 심상 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 김광균, 「외인촌」

03 '거대한 산줄기'는 작은 지붕들이 주는 큰 위로와 위안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비교 대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어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불빛'은 시련을 겪고 있던 시적 화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존재를 상징하며, 고난 속에서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② '어둠'은 시적 화자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므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③ '맞잡을 손'은 시적 화자가 좌절과 외로움 속에서 느낀 위로와 위안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④ '밤'은 시적 화자가 산속에서 맞이한 시간으로, 밤을 맞은 시적 화자는 어깨를 감싸 주는 '작은 지붕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 따라서 '밤'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04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을 맞아 본 시적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인간의 주체성보다는 '누군가 맞잡을 손'과 같이 타인의 도움과 위안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산속'이지만, 올바른 산행법이나 안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에 '산속'과 '거대한 산줄기'라는 자연이 등장하기는 하나 이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05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은 나그네가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위안과 편안함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이 둘의 비교를 통해 '먼 곳의 불빛'이 지닌 의미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6 이 시에서 산속에서 맞이한 밤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의미하므로 이를 낭만적인 미래로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나그네는 '먼 곳의 불빛'을 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가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② 이 시에서 '길을 잃어 본 사람'은 시련과 고난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길을 잃은 것처럼 암담하고 힘들 수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③ 이 시에서 '먼 곳의 불빛'은 희망이나 목표를 의미하므로 천문학자라는 먼 곳의 불빛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표현은 적절하다.
⑤ 이 시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은 고난에 처한 이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타인의 도움을 의미하므로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이를 잊지 말라고 한 표현은 적절하다.

07 이 시에서는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08 이 시의 1연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불빛의 따뜻함을'이라는 목적어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적 배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도치법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문장 표현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셔라. 물을", "명심해라. 선생님의 조언을"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문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표현하려는 것을 강조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09 〈보기〉에서 동일한 경험이나 생활,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빛깔에 대한 연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인간의 감정 표시는 색채와 결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빛깔에 대한 연상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 빛깔에 대한 연상적 가치가 발전하여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 색채에 대한 상징은 색채 그 자체의 특성, 맥락 · 환경 · 시대 · 문화 등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서사 갈래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25쪽

1 O 2 X 3 O

확인 문제 026~041쪽

1 (1) 미래 (2) 마인드 **2** 마인드에 자아가 존재하는가. **3** (1) O (2) X (3) X **4** ② **5** ⑤ **6** ② **7** ③ **8** ④ **9** 지민의, 끌었다. **10** ⑤ **11** 엄마가 표지를 디자인한 책 **12** ④ **13** ① **14** ⑤ **15** ④ **16** ①

1 (1) 이 소설에서 서술하는 추모 공간과 추모 방식의 모습은 현재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과거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소설은 '지민'이 도서관에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 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란'은 '마인드에 자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3 (1) 죽은 '지민'의 엄마는 도서관에 기록되었다.
(2)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던 '지민'은 그동안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3)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 분실이 도서관 측의 착오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 측의 착오로 엄마의 태그가 실종된 것은 아니다.

4 '지민'은 임신 초기(8주)로 배 속의 아이를 위해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남편인 '준호'도 '지민'의 상황을 걱정하고, 병원에서는 주의 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다.

5 ㉠은 도서관 내 어딘가에 엄마의 마인드가 존재하지만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과 같은 관련 기록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마인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6 '지민'은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원죄 의식을 느끼고, 엄마에게 죄책감을 가졌다.

7 이 소설에서 엄마는 '지민'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기에서 '전화'는 '지민'에 대한 엄마의 과도한 집착을 보여 주는 소재로, '지민'을 통제하고자 엄마가 활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8 (자)에서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은 엄마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9 (차)의 첫 문장은 '지민'이 엄마와의 일을 회상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 준다. '지민'이 과거를 회상하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은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지민'의 시선을 끈다.

10 '지민'은 종이책이 사라져 엄마가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을지라도, 엄마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민'의 엄마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종이책이 사라지기 전, '지민'의 엄마는 출판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했다.
④ '지민'의 엄마는 '지민'을 낳고 출산 휴가를 냈다.

11 '지민'은 '엄마가 표지를 디자인한 책'이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게 해 줄 인덱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소설 속 소재의 기능

- 등장인물 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소하는 데 기여함.
-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거나,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 줌.
- 작가가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함.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당시의 고유한 시대상을 드러내기도 함.

12 "유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이라는 말에서 '현욱'은 아내가 표지를 디자인한 책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욱'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삶을 살며 아내가 느꼈던 단절감과 고통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고 자료

소설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직접적 제시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독자가 쉽게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간접적 제시	•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낼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함.

13 아빠가 엄마의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민'은 아빠를 질책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일지도 모른다.'라는 서술을 통해 '지민'이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킨 것에 자신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민'의 말에는 엄마의 인덱스를 지워 버린 아빠의 행동에 대한 질책과 원망뿐 아니라, 엄마를 고립시킨 것에 일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과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이 소설은 '지민'이 도서관에서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 엄마의 유물을 살펴보면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이 소설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지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민'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들려주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갈등의 심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마인드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인드는 망자들의 생전 모습을 바탕으로 재현된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장하여 보여 줄 뿐이다. 이 소설에서 망자들의 모습이 매번 바뀌어 재현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지민'은 엄마의 죽음 후에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엄마와 화해한다. 두 인물의 화해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는 엄마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054~057쪽

01 ② **02** ⑤ **03** ① **04**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05** ④ **06** ③ **07** ③ **08** ④ **09** ② **10** ③

01 이 소설은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및 특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여 도서관의 변화된 모습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소설에서 '준호'의 발화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지민'의 생각과 감정 등 내면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④ 이 소설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는 활용되지 않았다.
⑤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02 '준호'가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라고 말한 것에서 '준호' 또한 엄마의 마인드를 찾고자 하는 '지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에서 엄마가 생전에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에서 사서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원인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에서 '지민'이 엄마가 도서관에 기록된 지 3년 만에 도서관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에서 마인드 도서관이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03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랜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보이게 했다.'에서 도서관이 외양적으로는 관광 명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곳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에서 도서관이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상실감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도서관에 기록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것에서 도서관이 마인드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⑤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 '살아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에서 도서관에서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유족들이 고인을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처음에 사람들은 마인드는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평가 기준	평가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상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는 썼으나, 표현이 미흡하였다.	중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을 찾아 쓰지 못하였다.	하

05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의 내면은 서술되지 않고 '지민'의 입장에서 관찰한 '준호'의 표정만이 서술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등 실제로 책을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관찰을 통한 사실적 서술일 뿐 '지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한 것은 아니다.
②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는 '지민'의 내면이 서술되고는 있으나 서술자는 사건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③ '사서가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것은 사서의 말을 지민의 입장에서 재서술한 것이다.
⑤ '한창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은 '준호'가 한 말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 임신에 대한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06 이 글에서는 '지민'과 아빠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은 엄마에게 한 번도 건강한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지만, 엄마에게 해야 할 말이 있기에 엄마를 찾고자 한다.
②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로 미루어 보아,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유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찾으려는 '지민'에게 이상하다고 반응하며 '지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⑤ '지민'은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07 '지민'의 입장에서 '지민'이 엄마와 갈등을 겪은 사건과 그 과정에서 엄마와 남아 있던 약한 관계마저 끊어버리고 싶었던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의 입장에서 사건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두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지민'의 내면만 서술하고 엄마의 내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엄마와 '지민'이 서로 상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⑤ 엄마가 아빠에게 느끼는 감정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를 '지민'이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08 '지민'이 기억하는 '그 대화'가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던 것은 '그 대화'를 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병원에 들어가고 '지민'은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지 엄마가 곧 돌아가셨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지민'은 엄마의 집착과 통제로 인해 엄마와 갈등을 겪었다.
② '지민'은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자신을 낳고 겪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③ '지민'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원망할 대상이 사라지고 더 이상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⑤ '지민'은 엄마의 과거를 떠올리며, 임신한 지금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엄마의 삶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인다.

09 ⓐ를 기점으로 하여 '지민'과 엄마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 서술되고 있다. 즉 ⓐ는 엄마와 '지민'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던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는 '유민'이 '지민'의 시선을 끌어 '지민'의 과거 회상이 종료되는 부분이다.

10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인 '유민'을 만난다. 따라서 '지민'이 ㉮의 원인을 찾기 위해 '유민'을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에서 '지민'이 ㉮를 이유로 ㉯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에서 ㉯가 두 사람의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제야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도 몰랐다.'에서 '지민'이 엄마의 분실된 마인드를 찾는 것이 의미 없는 행동인 건 아닐지 걱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린다.'에서 '지민'의 배 속 태아에 대한 감정이 ㉰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극 갈래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59쪽

1 X 2 O 3 O 4 X

확인 문제 060~075쪽

1 ④ 2 이야기책 3 ② 4 ⑤ 5 ② 6 덤 7 ① 8 ⑤
9 ① 10 ③ 11 ① 12 큰 구두 한 짝 13 ③ 14 ④
15 ④ 16 ① 17 ②

1 '여자'는 '남자'가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긴 것에 놀라 어머니에 대한 '남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자'가 넥타이를 빼앗긴 이유를 '여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점에서 '남자'가 '여자'를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 중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하여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간다.'를 통해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아 감을 알 수 있다.
③ '여자'가 '남자'에게 "왜 빼앗기셨죠?"라고 묻는 것에서 '하인'이 '남자'에게서 넥타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 '여자'가 의아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남자'는 '하인'이 넥타이를 빼앗은 이유를 묻는 '여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의 어머니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2 '앞부분 줄거리'에서 '남자'는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하는데, 이 이야기책의 내용이 결국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책이 관객에게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에서는 조명이나 음악을 활용하거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시문 '(속상하다는 듯이)', '(웃으며)', '(작게 한숨을 쉬고)' 등에서 표정과 행동을 통해 배우의 심리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③ '남자'는 '하인'에게 넥타이를 빼앗기자 남성 관객에게서 넥타이를 빌리는데, 이를 통해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남자'는 관객석을 걸어 다니다가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건네 소품을 빌린다. 또, '여자'가 '남자'의 넥타이를 칭찬하자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를 통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관객이 극 중에 참여하게 된다.
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이라는 '남자'의 대사를 통해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결국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제 의식이 암시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4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자'의 대답을 듣고 '남자'는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것을 '여자'의 어머니가 알게 될 경우,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막막함을 느껴 남자가 보인 행동이다. 따라서 ㉠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으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경우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5 '하지만요, 저는 아버질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에서 '여자'가 사기꾼이었던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에서 '여자'가 어렸을 때 '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에서 '여자'가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 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가슴속에 덮어 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에서 '여자'가 자신을 사기꾼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덤'은 여자의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드러난다. 작가는 '여자'의 '덤'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소유는 빌린 것이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7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으로 '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의 '덤' 이야기를 통해 '남자'는 물질적인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8 '남자'는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빼앗기는 물건들을 '자질구레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에 초연해지게 되었다. 이는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9 하인이 '남자'의 모자를 가져가려다가 멈춰 서서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인'이 '여자'와 원래 알고 지냈다고 볼 수 없다.

10 사진 놀이에서 '여자'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여자의 어머니'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여자의 할머니'가 된다. '남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젊음과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상황을 사진 놀이로 표현하여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내용을 '여자'에게 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1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던 '여자'는 쪽지(경고문)를 통해 '남자'가 사기꾼이었음을 알게 되고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있다. 즉, (차)~(카)에서는 쪽지라는 소품을 활용하여 사건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하인은 시간이 경과하자 구둣발로 '남자'를 차 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빌린 물건을 되돌려주어야 할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보여 주며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13 악의적인 느낌이 없는 '여자'의 말투로 보아, '여자'는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며 떠나려는 '여자'를 설득하고 있다.
② '남자'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라며 관객을 극중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남자'는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④ '남자'는 자신이 넥타이를 빌린 후 소중히 아꼈다가 되돌려줬던 것을 근거로 들어 '여자' 또한 세상에서 빌려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다 되돌려주겠다며 헌신적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
⑤ '하인'은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는 '하인'이 구두로 '남자'를 걷어차서 저택에서 내쫓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14 이 작품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엄격했던 기존의 극과 달리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관객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15 결혼의 조건으로 외적인 요소를 따지던 '여자'는 '남자'가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하지만,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의 말에 설득되어 청혼을 수락한다.

16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무대를 퇴장하고 있다. 즉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므로,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배경 음악이 어울린다.

17 작가는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소유에 집착하지만 그것은 언젠간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기에 물질적 소유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랑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진심과 헌신에 있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086~08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이야기책은 관객에게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여, 관객이 '남자'의 상황과 심리, 극의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06** ③ **07** ② **08**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작가의 관점이 담겨 있다. **09** ② **10** ⑤

01 (나)에서 '하인'이 '남자'에게 준 쪽지(경고문)로 인해 '남자'가 여자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하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여자'는 '하인'이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왜들 그러시죠?", "왜 빼앗기셨죠?"라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
② (가)에서 '하인'은 넥타이를 오 분만 더 빌려달라는 남자의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거절하고 있다.
③ (가)에서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를 통해, '남자'는 넥타이를 왜 빼앗아 갔는지 이유를 묻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여자'에게 어머니의 성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라는 '여자'의 질문에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라고 '남자'가 대답한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있다.

02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 온 건지는."이라는 대사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빌린 것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하인'에게 넥타이를 뺏긴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자'에게 "만약 내 목이 떠나고 넥타이만 남았다면……."이라는 과장된 가정의 농담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어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
② 넥타이를 가져오라는 '남자'의 명령에 '하인'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하인'이 잘해 보라고 했다는 말을 지어냄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③ '하인'이 더는 넥타이를 빌려주지 않자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 부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허위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⑤ 쪽지에 적힌 '나가라'가 무슨 뜻인지를 묻는 '여자'에게 '남자'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동안 '여자'를 속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03 '남자'는 사기꾼인 자신의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하인'에게 빼앗긴 물건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며 '여자'에게 큰소리를 친 상황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듯이 권위 있는 말투로 연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여자'가 아직 '남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남자'의 신분을 의심하는 말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남자'가 넥타이를 오 분만 더 빌려달라며 '하인'에게 사정을 하는 상황이므로 화난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남자'가 관객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하는 상황이므로 성의 없는 말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이 사기꾼이었음을 밝히려 하는 진지한 상황이므로 상대의 반응에 대한 호기심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가)에서 '남자'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있다. 〈보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소도구로 응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의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라는 '남자'의 대사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실내악을 언급한 것은 이 공연의 상연 공간의 특성을 음악에 빗대고자 한 것이다.
② 〈보기〉에서 이 공연은 무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하인'이 '남자'에게 건넨 봉투는 관객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소품이다.
⑤ 〈보기〉에서 별다른 조명이나 효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5 '이야기책'은 '남자'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어 관객에게 '남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관객이 '남자'의 상황과 심리, 극의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이야기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야기책'의 서사적 기능을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이야기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야기책'의 서사적 기능을 제시하였으나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이야기책'의 서사적 기능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6 (나)에서 '하인'이 '구두'를 신고 '남자'를 걷어찰 듯이 서서히 무섭게 다가오는 행동을 통해 극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여자'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 '하인'이 '남자'를 걷어차는 행위는 '여자'의 결심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동일한 공간적 배경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른 구성의 유형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순행적 구성(평면적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입체적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구성 방식이고, 역순행적 구성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07 (나)에서 '여자'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라고 말한 것에서 '남자'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에는 '남자'가 사기꾼임을 알고 '남자'의 청혼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에서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알고도 경멸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여자'는 '하인'에게 걷어차는 '남자'의 모습을 보며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④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떠나려고 한다.
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기꾼임을 알게 되어 '남자'를 떠나려고 한다.

08 '덤'은 여자의 별명으로,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보여 준다.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며,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덤'의 의미를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관련지어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덤'의 의미와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덤'의 의미와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9 [A]에서 '남자'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 간절하면서도 절규하듯이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이라며 증인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여자'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남자'는 "덤! 덤! 덤!"과 같이 '여자'를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여자'를 설득시키고자 하는 '남자'의 간절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④ '남자'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드렸지요."와 같이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빌린 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⑤ '남자'는 넥타이를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준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 또한 세상에게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남자'의 말하기 태도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헌신적 사랑 약속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10 '남자'는 빌린 물건으로 부자인 척 '여자'를 속였는데 이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에 있어 물질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보기〉에서 혼인 건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결혼 비용 증가인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참고 자료

「결혼」 속 시간의 의미

여자는 저택에서 추방되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여자는 남자가 모든 것을 빌린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여자의 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한 사기꾼 남자를 여자는 만난 것이다. 여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자의 결정을 재촉하는 것은 하인의 행동이다. 〈중략〉 남자가 증인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유한한 시간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시간의 유한성을 이해시킨다. 남자의 설득으로 소유의 허상을 인식하게 된 여자는 남자의 빈털터리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은 유한한 시간을 받아들임으로써 유한한 시간을 극복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흐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다.

– 김윤미, 「이강백 희곡의 시간 구조 연구」(2002)

04 교술 갈래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091쪽

1 O 2 O 3 X

확인 문제 092~095쪽

1 ② **2** ① **3** '비'는 자연적인 것을,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한다. **4** ④ **5** 경계

1 이 글은 예스러운 어투와 단정적인 어조로 글쓴이의 자연관을 전달하고 있다. 경어체를 사용하거나 화초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병들어 가던 화초들이 비를 맞고 소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가 내리는 것을 기점으로 사건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에는 화단을 정성스레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글쓴이가 관찰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④ 이 글은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저 하늘 물이라야……" 등 노인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마치 노인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 들었다.'에서 '누릇누릇하게', '불에 데인 것처럼' 등의 수식어를 활용하여 병들어 가는 화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2 '비가 왔다',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에서 병들어 있던 화초들이 비를 맞고 소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에서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닌 사흘 동안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③ 노인이 거름을 주어 화초들이 말라 든 것이 아니라, 말라 들어가는 화초들을 살리기 위해 노인이 거름을 준 것이다.
④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다가, 비가 오자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올랐다고 하였다. 따라서 풀 잎사귀들이 가을이 되어 노랗게 뜸이 든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 말라 들어 노랗게 뜸이 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노 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에서 노인이 손아들에게 화초를 돌보는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손아들과 함께 화초를 돌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이 글에서 '수돗물'은 병들어 가는 화초들을 살리기 위해 노인이 준 물이며, '비'는 하늘에서 내린 물이다. 따라서 '비'는 자연적인 것을, '수돗물'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호격 조사(이여, 이시여 등),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하여 감탄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안손님', '재공', '일고지혜' 등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나 한자어 등의 예스러운 어투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② '도닥도닥', '성큼성큼'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여 화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노인이 가공한 '석류나무'와 되는 대로 자라나는 '봉선화'의 특성이 대비되고 있으며, '석류나무'보다 '봉선화'가 더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평가에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더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⑤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초들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노인의 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5 글쓴이는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106~109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자연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품이며,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 **06** ② **07** ⑤ **08** ④ **09** ④ **10** ① **11** ①

01 이 글은 노인의 화초 가꾸기를 관찰한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글의 '나'는 서술자이자 글쓴이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② 노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는 화초들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노인의 모습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02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를 볼 때, 노인이 어린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노인의 인위적인 가공의 결과이므로,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노인은 조석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등 병들어 가는 화초들을 간호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화초들을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② 노인은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화초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④ 노인은 자신이 가공한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등을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구경시키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화초를 가공하는 자신의 재주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노인은 자신이 가공한 석류나무를 보며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자신이 가공한 석류나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태적 관점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둘 사이의 상호보완 관계를 설명하려는 관점을 말한다. 생태적 관점에서는 자연을 도구로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경계한다.

03 노인은 날마다 물을 주어도 화초들이 말라 드는 것을 보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비를 충분히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보며 하늘의 물인 비만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를 볼 때 화초들의 소생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를 볼 때 빗물의 양이 충분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노인이 이전에도 수돗물을 조석으로 주었으므로 물의 양보다는 '하늘 물'이기에 화초들을 살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노인은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보며 자연의 힘을 깨닫고 있다.
⑤ 화초들이 사흘이나 내린 비를 맞고 소생하였으므로 화초에 물을 너무 많이 준 것이 병의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글쓴이는 노인이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석류나무보다도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자라난 봉선화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은, 글쓴이가 노인에 의해 가공된 석류나무를 '괴로운 꼴'이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글쓴이는 자연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본성 그대로 자라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봉선화가 석류나무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은 없다.'에서 글쓴이는 석류나무와 봉선화 모두 신의 작품이라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봉선화가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난 것에 더욱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③ 봉선화가 구석 응달 밑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뒤틀려 있어 괴로운 꼴이라고 한 것은 석류나무이다.
⑤ 글쓴이는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 하는 석류나무 가지를 노인이 변형시킨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봉선화의 기운이 넘치는 모습이 석류나무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글쓴이는 자연은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미완품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연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품이기에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문맥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게 서술하였다.	상
문맥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가치관을 서술하였으나 표현이 다소 미흡하였다.	중
글쓴이의 가치관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6 글쓴이는 자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에 인간이 이를 개작할 수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글쓴이가 지향하는 자연관이 자연을 개작할 실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손아', '억조창생', '일고지혜' 등의 어휘 사용에서 잘 드러난다.
③ 〈보기〉에서 이 글의 노인이 화초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화초에 조석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④ 〈보기〉에서 노인이 인공적인 화단 가꾸기에 몰두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노인이 석류나무를 철사를 이용해 사 층, 오 층으로 만든 것에서 잘 나타난다.
⑤ 〈보기〉에서 글쓴이가 인공적인 화단 가꾸기에 몰두하는 노인을 비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노인에 의해 석류나무 가지가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인 모습을 보며 글쓴이가 괴로운 꼴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07 (가)는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노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겨울나무를 소재로 사용하여 인간이 인공적으로 불을 밝혀 나무가 밤에도 광합성을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점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등의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나열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노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사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08 (가)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가꾼 석류나무에 대하여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노인의 감상평에 동의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지 글쓴이의 안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찰찰하신 노(老) 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에서 노인이 병들어 가는 화단을 아침저녁으로 돌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노인은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보며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고 하였다.
③ 노인은 자신이 가꾼 석류나무를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평했으나, 글쓴이는 불유쾌를 느낄 뿐이라고 하였다.
⑤ '봉선화'는 다른 화초들과 달리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났다고 한 데에서 봉선화가 노인의 손이 가지 않은 채로 자라났음을 알 수 있다.

09 (가)에서 글쓴이는 봉선화가 노인이 가공한 석류나무보다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봉선화는 글쓴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시적 화자는 꼬마전구들로 인해 가로수들이 한밤중에 광합성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가로수를 화자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10 (가)에서 비가 내려 화초들이 소생하는 것은 만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자연의 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연을 도구로 삼아 발전하는 사회의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글쓴이는 자연은 신의 완성품이기에 인간이 손을 댈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녹색 가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민감한 감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③ (나)에서 시적 화자는 밤에도 불을 밝히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④ (나)의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에서 '권력들'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무에 전등을 밝혀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⑤ (나)에서 시적 화자는 밤에도 불을 밝히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나무가 한밤중에도 광합성을 하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11 (가)와 (나)는 모두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한 화제가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1

116~120쪽

01 ④ **02**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시련이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의미한다.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② **08** ⑤ **09** ① **10** ④ **11**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의 전개에 긴장감을 유발한다. **12** ④ **13** ⑤ **14** ② **15** 글쓴이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석류나무를 보며 불유쾌를 느끼고 있다.

01 이 글에서 시간의 흐름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의 고조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불빛'과 '어둠'은 각각 희망과 고난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고난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② '불빛', '어둠'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불빛의 따뜻함'과 같은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목적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는 도치법의 사용으로 '불빛의 따뜻함'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가 길을 잃고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경험과 그로부터 깨달은 바를 제시함으로써 고난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주제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02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처럼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먼 곳의 불빛'이 지닌 의미를 적절한 구절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상
'먼 곳의 불빛'이 지닌 의미를 적절한 구절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였다.	중
'먼 곳의 불빛'이 지닌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

03 1연에서는 길을 잃고 터덜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이 위로와 위안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로와 위안을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연에서는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에게 작은 지붕들이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 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4 시적 화자는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과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 사이의 연대와 위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서 겪는 위로와 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통에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② 부정적 상황이 인간을 더욱 성숙한 삶으로 이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 강인한 의지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1연에서 시련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경험한 희망을 모를 것이라고 하였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05 이 시에서는 '~은 -리라', '얼마나 -ㄴ지'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어미 '-리라', '-ㄴ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음보율

시를 끊어 읽는 단위인 '음보'의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생기는 운율이다. 보통 3음절이나 4음절이 하나의 끊어 읽기 단위가 되어 음보율을 이룬다.

06 시냅스 스캐닝 장면에서 주로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황의 긴박함과 인물의 초조함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엄마에 대한 지민의 상상을 제시하고 있다.

07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다.'에서 도서관에서도 종이책을 보기 힘듦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에서는 아이를 가진 후 자신의 원래 이름을 잃고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를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엄마로만 존재하게 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09 '네 권의 종이책'은 '은하'가 표지를 만든 책으로, '은하'의 감각과 취향을 담고 있어 '은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이는 '은하'의 분실된 마인드를 찾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고, 결국 이를 통해 '은하'의 마인드를 찾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출판사에 다녔던 '은하'의 과거의 삶을 담고 있는 소재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은하'가 '지민'을 용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하'가 표지를 만들었기에 '은하'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은하'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고립되어 간 것이지 '네 권의 종이책'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④ '은하'의 감각과 취향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은하'에 대한 '지민'의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⑤ '현욱'이 보관하고 있었던 책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은하'에 대한 '현욱'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욱'은 '은하'의 잃어버린 마인드를 찾으려 하고 있지 않다.

10 '남자'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자꾸만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자'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지 '여자'에게 진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구둣발'은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택에서 나가지 않는 '남자'를 쫓아내기 위한 소재로, 극 중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구둣발'의 기능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구둣발'의 기능을 제시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구둣발'의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

12 (라)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라고 물은 것은 '여자'가 가진 모든 것도 본래부터 남들에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유의 본질을 전달하려는 의도이지 '여자' 또한 사기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빈털터리인 남자가 부자인 척 자신을 꾸민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가)에서 '하인'에게 빼앗긴 넥타이는 '남자'가 부자인 척 보이기 위해 빌린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빈털터리인 남자가 부자인 척하는 가난한 사기꾼 이야기라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나)에서 언급된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가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여자'의 말에서 '남자'의 정체가 드러난 뒤에도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이 작품이 소유의 본질을 전달한다는 〈보기〉의 내용과 (다)의 나무와 고양이 이야기를 참고할 때, (다)에서 '남자'의 자랑거리는 이러한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헌신적인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라)에서 '남자'가 세상에서 '여자'를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주겠다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글쓴이인 '나'이다.

오답 풀이 ① 노인은 병들어 가는 화초를 살리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돌보았다.
② 노인은 비를 맞고 기적과 같이 소생한 화초들을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③ 노인은 자신이 가공한 석류나무에 대해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며, 자신의 재주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④ 노인이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자신이 가꾼 화초들을 보여주었다.

14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빗물)'로, 자연적인 것에 해당한다. ㉡은 문맥상 노인이 화초에 직접 주는 '수돗물'로, 인위적인 것에 해당한다.

15 이 글은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석류나무의 모습에 불유쾌를 느끼는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글쓴이가 불유쾌를 느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상
글쓴이가 불유쾌를 느낀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글쓴이가 불유쾌를 느낀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❷ 121~125쪽

01 ② **02**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03** 어려운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04** ⑤ **05** ⑤ **06** ⑤ **07** ⑤ **08** 삶과 죽음을 연결하여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0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④

01 이 시는 '~은 -리라', '얼마나 - ㄴ지'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고난에 처한 시적 화자에게 희망, 위로, 위안이 되어 준 존재이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평가 기준	평가
희망, 위안, 위로 등 긍정적 의미에 해당하는 시어 세 개를 모두 정확하게 썼다.	상
희망, 위안, 위로 등 긍정적 의미에 해당하는 시어 두 개만 정확하게 썼다.	중
희망, 위안, 위로 등 긍정적 의미에 해당하는 시어 한 개만 썼다.	하

03 '나그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를 가리킨다.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평가
'나그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나그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였으나 ㉠이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4 〈보기〉의 시는 '연필로 (시) 쓰기'를 '인생'에 비유하여, 실수와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부족한 자신이 언제나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삶을 지우고 용서받고 싶어 할 뿐,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5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의 행동, 심리 등을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 준다.

06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로 살아 있는 정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재현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진실이든 간에 엄마를 마주하게 된 지금 '지민'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지민'은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엄마를 찾아 왔다.

07 '지민'은 가상 공간 속 엄마의 서재를 보면서,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엄마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던 엄마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08 이 글에서 '지민'은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과학 기술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만난 엄마와 화해하고 있다. 이는 과학 기술이 삶과 죽음을 연결하여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이 글에 나타난 과학 기술의 역할을 과학 기술의 특성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이 글에 나타난 과학 기술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중
이 글에 나타난 과학 기술의 역할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09 (가)와 (나) 모두 하인이 남자에게 덤벼들어 호주머니를 뒤지고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 간다는 해설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고 (나)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관객 앞에서 연기를 직접 보여 주는 (가)가 (나)보다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③ (나)는 이펙트, 클로즈업, 인서트, 디졸브 등과 같이 다양한 영화 촬영 및 편집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나)는 'S# 17. 남자의 집 응접실(낮)'과 같이 '신(scene)'을 구성 단위로 하여 시간과 공간을 표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나 서술자 없이 '남자', '여자', '하인'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10 〈보기〉에 따르면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가)의 '남자' 또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자꾸만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남자'는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물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하인'이 '남자'의 소지품들을 털어 가는 것은 물건을 빌리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며 이는 소유의 일시성을 드러낸다.
② '여자'는 아직 '남자'가 사기꾼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미소를 짓고 있다.
④ 〈보기〉에서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⑤ '남자'가 빌린 물건으로 부자인 척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것 또는 삽입한 화면을 가리키는 시나리오 용어는 '인서트'이다.

오답 풀이 ① '이펙트'는 화면에 삽입된 효과음 등의 음향을 말한다.
② 'S#'는 'Scene number'의 줄임말로, 장면의 번호를 말한다.
③ '클로즈업'은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
⑤ '디졸브'는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는 장면 전환 기법을 말한다.

12 이 글은 수필로,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이 글은 글쓴이가 화초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노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글쓴이와 노인의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서사 갈래와 극 갈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화단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자연은 그대로의 것이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며 이 글을 감상할 수 있다.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단을 가꾸는 노인과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석류나무, 장미, 복숭아나무, 또 노인의 손이 닿지 않은 구석 응달 밑 봉선화 등 자연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글을 감상할 수 있다.
③ 예스러운 어투와 의태어, 대상 간의 대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며 이 글을 감상할 수 있다.
④ 독자는 자연이 지닌 그 자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이 글을 감상할 수 있다.

13 [A]에서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석류나무와 노인의 손이 닿지 않은 봉선화를 대조하여 봉선화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일고지혜'라는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노인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지 봉선화가 지닌 전통미를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성큼성큼'이라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봉선화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석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석류보다도 봉선화 몇 떨기가 몇 배 더 아름답다며 석류와 봉선화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자연물이 지닌 각자의 개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영탄법은 감탄사, 호격 조사,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A]에서는 영탄법이 쓰이지 않았으며,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운 정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2 품격을 높이는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29쪽

1 O 2 X 3 O 4 X

활동 1 확인 문제 136쪽

1 음운 변동 2 ⑤ 3 (1) O (2) O 4 ③

1 어떤 음운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2 '관리'는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괄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곡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공물]로 발음한다.
② '식물'은 비음화가 일어나 [싱물]로 발음한다.
③ '입는'은 비음화가 일어나 [임는]으로 발음한다.
④ '굳는'은 비음화가 일어나 [군는]으로 발음한다.

3 (1)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ㅓ, ㅗ'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되어, 피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준하여 '이오, 아니오'도 [이요],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4 용언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이면 된소리로 발음된다. '간다'는 '가-+-ㄴ-+-다'로 분석되고, '-ㄴ-'은 어미이므로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다'는 [간다]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역도'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역또]로 발음한다.
② '넘고'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넘꼬]로 발음한다.
④ '열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열쩡]으로 발음한다.
⑤ '몸 둘 바'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몸둘빠]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ㄽ,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5항** 어간 받침 'ㄼ, ㄿ'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활동 2 확인 문제 141쪽

1 ① 2 ③

1 '갈등(葛藤)'은 한자어 'ㄹ'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가 되어 [갈뜽]으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6장 제26항).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각각 세다[세다], 수세미[수세미], 잘리다[잘리다], 과 사무실[과 사무실]로 발음해야 한다.

2 '치르다'는 어간 '치르-'에 어미 '-ㅓ'가 이어질 때 어미 '-ㅓ' 앞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므로 '치르- + -어야'는 '치러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폭발'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폭빨]이라고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족집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족찝게]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생길는지'는 유음화가 일어나 [생길른지]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얽히고설켜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얼키고설켜서]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정확한 발음과 표기 생활

정확한 발음과 표기 생활을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을 지켜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헷갈리는 발음과 표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지니는 등의 태도가 필요하다.

소단원 평가 146~149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④ 07 ② 08 ① 0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어두에서 불필요하게 된소리가 쓰였다. 14 ③ 15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16 ② 17 생강만, '생각'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01 〈보기〉에서 ㉠은 교체, ㉡은 축약, ㉢은 탈락, ㉣은 첨가이다. '안고'는 용언 어간 '안-'의 받침 '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가 되어 [안:꼬]로 발음한다. 된소리되기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되어[되여]'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이 새로 생겼다(첨가).
③ '칼날[칼랄]'은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났다(교체).
④ '놓치다[논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교체).

⑤ '잊히다[이치다]'는 예사소리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축약).

참고 자료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평파열음화' 현상이라고도 한다. 평파열음은 파열음의 예사소리, 즉 평음인 'ㄱ, ㄷ, ㅂ'을 말한다.

02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붙이'는 실질 형태소인 '붙'의 받침에 오는 'ㅌ'이 형식 형태소인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무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구개음화의 조건에 맞지 않으며, [비츨]로 발음한다.
② 실질 형태소인 '끝'의 'ㅌ'과 형식 형태소인 '을'이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연음 현상이 일어나 [끄틀]로 발음한다.
③ 실질 형태소인 '밭'의 받침 'ㅌ' 다음에 형식 형태소인 '에'가 오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연음 현상이 일어나 [잔디바테]로 발음한다.
⑤ 구개음화의 조건에 맞지 않으며,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티끄리]로 발음한다.

03 '곧이어'는 실질 형태소인 '곧'의 'ㄷ'과 실질 형태소인 '이어'의 모음 'ㅣ'가 만나는 경우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곧이어'는 연음 현상만 일어나 [고디어]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굳이'는 실질 형태소의 'ㄷ'과 형식 형태소의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한다.
② '같이'는 실질 형태소의 'ㅌ'과 형식 형태소의 'ㅣ'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한다.
③ '굳은'은 실질 형태소의 'ㄷ'과 형식 형태소의 모음 'ㅡ'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 현상만 일어나 [구든]으로 발음한다.
④ '같은'은 실질 형태소의 'ㅌ'과 형식 형태소의 모음 'ㅡ'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연음 현상만 일어나 [가튼]으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연음 현상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소리는 그대로 뒤 음절로 옮겨 발음된다.

04 〈보기〉의 '곡물, 굳는, 입는'은 음절 말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ㅁ'으로 교체되어 각각 [공물], [군는], [임는]으로 발음한다. '실내, 관리'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온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교체되어 각각 [실래], [괄리]로 발음한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05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ㄱ, ㄷ, ㅂ'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의 조음 방법이 달라져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오답 풀이 ② '역도'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역또]로 발음한다.
③ '넘고'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ㅁ'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넘꼬]로 발음한다.
④ '열정(熱情)'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오는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어 [열쩡]으로 발음한다.
⑤ '몸 둘 바'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오는 'ㅂ'이 된소리 'ㅃ'으로 교체되어 [몸둘빠]로 발음한다.

06 '꽃다발'은 제23항에 근거하여 [꼳따발]로 발음한다. '앉고'는 제24항에 근거하여 [안꼬]로 발음한다.

07 〈보기〉의 밑줄 친 '놓지, 않던, 입학, 축하'는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각각 [노치], [안턴], [이팍], [추카]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거센소리되기는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이 예사소리에서 거센소리로 달라지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③ 음운 변동의 결과 각각 [노치], [안턴], [이팍], [추카]로 발음한다.
④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⑤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로 '법학', '좋고', '잊히다'가 있으며 각각 [버팍], [조코], [이치다]로 발음한다.

08 '서서'는 '서- + -어서'로 분석되며,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ㅓ'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며 'ㅓ'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② '나서'는 '나- + -아서'로 분석되며,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ㅏ'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며 'ㅏ'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③ '가라'는 '가- + -아라'로 분석되며,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ㅏ'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며 'ㅏ'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④ '따라'는 '따르- + -아'로 분석되며,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⑤ '꺼'는 '끄- + -어'로 분석되며,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09 일반적으로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반모음 첨가가 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되어, 피어'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준하여 '이오, 아니오'도 [이요],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어'는 [개어]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오답 풀이 ① '되어'는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다.
② '되어'는 [되어] 또는 [되여]로 발음되고 [되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③ '피어'는 [피어] 또는 [피여]로 발음되고 [피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④ '피어'를 반모음이 첨가된 [피여]로 발음하면 단모음을 연달아 발음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10 '꽃이'는 실질 형태소의 '꽃'의 받침에 'ㅊ'이 오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며, 연음 현상이 일어나 [꼬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국민'은 비음화가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한다.
② '실눈'은 유음화가 일어나 [실룬]으로 발음한다.
④ '독도'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독또]로 발음한다.
⑤ '급행'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그팽]으로 발음한다.

11 (가)의 '생길른지'는 '생길는지'로 표기해야 하며,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생길른지]로 발음한다. (나)의 '얼키고설켜서'는 '얽히고설켜서'로 표기해야 하며 예사소리인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얼키고설켜서]로 발음한다. (다)의 '치르어야'는 '치러야'로 표기해야 하며, 용언 '치르-'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므로 [치러야]로 발음한다. 모음 탈락은 모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12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라 받침 'ㅅ, ㅌ'은 어말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뀌므로 '낫'은 [낟], '맡다'는 [맏따]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밖'의 'ㄲ'은 어말에서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박]으로, '빛다'의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빋따]로 발음한다.
③ '키읔'의 'ㅋ'은 어말에서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키윽]으로, '갔다'의 'ㅆ'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갇따]로 발음한다.
④ '덮다'의 'ㅍ'은 어말에서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덥따]로, '피읖'의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피읍]으로 발음한다.
⑤ '꽃받침'의 'ㅊ'은 어말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꼳빧침]으로, '앞치마'의 'ㅍ'은 'ㅂ'으로 바뀌어 [압치마]로 발음한다.

13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발음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된소리가 쓰였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로, '잘리다'는 [잘리다]로, '수세미'는 [수세미]로 발음해야 한다.

14 '덮개'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교체되어 [덥개]로 바뀐다. 다음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덥깨]로 발음하므로,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났다.

오답 풀이 ① '팥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팓알]이 된다. 다음으로 연음 현상이 일어나 [파달]로 발음하므로, 교체만 한 번 일어났다.
② '콧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콛물]이 된다. 다음으로 비음화가 일어나 [콘물]로 발음하므로,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났다.
④ '닫히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다티다]로 바뀌었다가 구개음화가 일어나 [다치다]로 발음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났다.
⑤ '깨끗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깨끋하다]가 된다. 다음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깨끄타다]로 발음하므로, 교체와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났다.

15 '첫눈'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어말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천눈]이 된다. 다음으로 비음 'ㄴ' 앞에서 음절 말 파열음 'ㄷ'이 비음인 'ㄴ'으로 교체되어 [천눈]으로 발음한다.

16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된소리되기이다. '이윽고(㉠)'와 '할 수(㉣)'의 발음은 각각 [이윽꼬]와 [할쑤]로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17 '생각만'의 표준 발음은 [생강만]이다. '생각'의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평가 기준	평가
'생각만'의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현상의 명칭 및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생각만'의 표준 발음이나 음운 변동 현상의 명칭 및 그 과정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생각만'의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현상의 명칭 및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2 공동체와 의사소통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51쪽

1 X 2 O 3 O

활동 1 확인 문제 156쪽

1 ⑤ 2 공손성, 칭찬, 겸손 3 (1) O (2) O 4 ㉠

1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대화의 원리이다. 협력의 원리에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이 있다. ⑤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양의 격률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
질의 격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
태도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2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공손성의 원리를 이루는 격률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함.
칭찬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함.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함.
동의의 격률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함.

3 (1) 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때 협력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하위 규범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를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2)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는 '체면 유지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4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예의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해야 한다(㉠).

오답 풀이 ㉡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
㉢ '협력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

활동 2, 3 확인 문제 167쪽

1 (1) O (2) O (3) X **2** ⑤ **3** ③ **4** ① **5** ㉠ 소통 ㉡ 역설법 **6** 언어 공동체

1 (1)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형성된 듣기·말하기 방식이나 습관, 태도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담화 관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담화 관습을 형성하거나 다른 언어 공동체의 관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기도 한다.
(2)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언어생활을 성찰하되, 비판적인 태도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3) 평범한 경험이라도 일상적인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참신한 표현으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2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은 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두 속담을 통해 불필요한 말은 삼가며 항상 말조심하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3 '김 선생'은 친구인 자신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서거정, 「차계기환」

갈래	설화, 패관 문학
성격	풍자적, 해학적
소재	친구의 인색한 대접
주제	인색한 대접에 대한 재치 있는 지적
특징	• 웃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해학적인 모습이 나타남. • 재치와 익살로 돌려 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시정을 촉구함.

4 '김 선생'이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라고 한 것은 친구의 인색함을 완곡한 방식으로 지적하기 위함이다. 즉, ㉠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완곡하게 말하기'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5 제시된 글은 공선옥의 「말을 걸어 봐요」의 일부분이다.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타인과의 '소통(㉠)'이 지닌 가치를 '역설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6 언어 공동체마다 문화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언어 실천 양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소단원 평가 172~175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상우'는 요령의 격률을 어겼고, '재민'은 겸양의 격률을 어겼다. **07** ⑤ **08** ⑤ **09** ③ **10** ② **11** ① **12** ⑤ **13** ① **14** 역설(법),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01 〈보기〉의 ㉠은 '동희'가 축구를 잘하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겼다. ㉡은 '화성'이 축구부 입단 시험의 결과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양의 격률을 어겼다. 양의 격률은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라는 협력의 원리 중 하나이다.
③ ㉠은 양의 격률에 맞게 축구를 잘하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④ ㉡은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자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은 관련성의 격률에 맞게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질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답변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02 '연우'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태도의 격률에 따라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3 '수아'가 시계를 보며 내일 1교시 수업에서 해야 할 발표를 걱정하는 것은 '선미'의 제안에 따라 저녁에 영화를 볼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수아'는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겨 '선미'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아'는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는 대화 함축을 통해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② '수아'가 양의 격률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수아'는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⑤ '수아'가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다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04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이란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겸양의 격률에 대한 내용이다.
② 칭찬의 격률에 대한 내용이다.
④ 관용의 격률에 대한 내용이다.
⑤ 요령의 격률에 대한 내용이다.

05 요령의 격률이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현'이 요령의 격률에 따라 '찬수'의 무리한 요청을 수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찬수'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관용의 격률과 관련된다.
③ '찬수'는 "옷 구경을 같이 가자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라는 표현을 통해 '지현'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표현은 동의의 격률과 관련된다.
④ '지현'은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리겠다."라는 표현을 통해 '찬수'를 칭찬했다. 이러한 표현은 칭찬의 격률과 관련된다.
⑤ '찬수'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렇게 말해 주니 정말 고마워."라는 표현을 통해 '지현'의 칭찬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표현은 겸양의 격률과 관련된다.

06 '상우'는 '재민'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꼭 도와줄 거라 믿어."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령의 격률을 어겼다고 할 수 있다. '재민'은 '상우'의 칭찬을 듣고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이는 겸양의 격률을 어겼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상우'는 요령의 격률을 어겼고, '재민'은 겸양의 격률을 어겼다는 것을 각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상우' 또는 '재민'이 어긴 공손성의 원리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상우'와 '재민'이 어긴 공손성의 원리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보기〉는 대화의 원리 중 체면 유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⑤는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08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보기〉는 농구 경기가 끝나고 팀원이 모인 자리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배의 체면을 고려하여 후배는 ⑤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③ 선배의 요청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④ 선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는 불필요한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경청하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의 교훈이다.
④ 〈보기〉의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의 교훈이다.
⑤ 〈보기〉의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의 교훈이다.

10 (나)에서 '주인'은 '김 선생'의 말을 통해 자신의 인색함을 깨닫고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따라서 '주인'이 스스로 인색함을 깨닫고 잘못을 시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라는 '김 선생'의 답변에 '주인'은 크게 웃고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이는 웃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해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김 선생'은 친구의 인색한 대접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라고 재치 있게 말하였다.
④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주인'은 일부러 좋은 안주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김 선생'이 우회적으로 친구의 인색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 드러난다.

11 (다)에서 '사 소저'는 "노야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유 소사 댁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 소저'의 말에서 '겸손하게 말하기'라는 담화 관습을 살펴볼 수 있다.

12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수필은 개성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성격의 글이며, 다른 갈래에 비해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다. 또한 소설과 같이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글이 아니라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에 대한 가치가 드러난다. 글쓴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산다는 것은 나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은,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혼자 단절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이다.

14 ㉠에서 글쓴이는 '역설(법)'을 사용하였다.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살아도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는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이타적인 소통 문화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역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보기〉와 같이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는 참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역설(법)'과 역설이 사용된 문장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역설(법)'과 역설이 사용된 문장 중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역설(법)'과 역설이 사용된 문장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❶

180~184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 '행복해[행보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할 수[할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11** ④ **12** ⑤ **13** ④ **14** ④ **15**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최근에 나온 디자인을 더 살펴보면 어떨까? 등 **16** ③ **17** ③ **18** ②

01 '닫다'는 예사소리 'ㄷ' 뒤에 오는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닫따]로 발음하고,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산림'은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살림]으로 발음하고, 유음화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에 속한다.
② '붙이다'는 실질 형태소 받침에 오는 'ㅌ'이 형식 형태소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치다]로 발음하고, 구개음화는 교체에 해당하므로 ㉠에 속한다.
③ '맏형'은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마텽]으로 발음하고,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해당하므로 ㉡에 속한다.
⑤ '되어'는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 [되어/되여]로 발음하고, 반모음 첨가는 첨가에 해당하므로 ㉣에 속한다.

02 '앞문'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바뀌어 [압문]이 되고, 다음으로 음절 말 파열음 'ㅂ'이 비음화가 일어나 'ㅁ'으로 바뀌므로 [암문]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따뜻한'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따뜯한]이 된다. 다음으로 예사소리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따뜨탄]으로 발음한다.
② '논리'는 음절 말 'ㄴ'이 대표음이고, 'ㄴ'이 유음 'ㄹ' 앞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놀리]로 발음한다.
③ '국밥'은 음절 말 파열음 'ㄱ'이 대표음이고,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ㅂ'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빱]으로 발음한다.
④ '국수'는 음절 말 파열음 'ㄱ'이 대표음이고,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국쑤]로 발음한다.

03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끝인사'는 '끝+인사'로 분석할 수 있다. '끝'의 받침 'ㅌ'이 실질 형태소 '인사'의 모음 'ㅣ'와 만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끝인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 종성에서 'ㅌ'이 'ㄷ'으로 바뀌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 [끄딘사]로 발음한다.

참고 자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

04 '얻는'은 같은 조음 위치에서 파열음 'ㄷ'이 비음 'ㄴ'으로 조음 방법이 변하여 [언:는]으로 발음하며, '안고'는 같은 조음 위치에서 파열음의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어 [안: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얻는[언:는]'은 비음화가, '안고[안:꼬]'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비음화와 된소리되기는 모두 교체에 해당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③ '안고[안:꼬]'는 'ㄱ'이 'ㄲ'으로 교체되었으며, '않고[안코]'는 'ㄱ'이 'ㅎ'을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④ '않고[안코]'는 축약이 일어나고 '아파[아파]'는 '아프-+-아'로 모음 탈락이 일어났으므로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⑤ '아파[아파]'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여 '아파'로 표기하지만, '피어[피여]'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피어'로 표기한다.

05 '서서[서서]'는 '서-+-어서'로 분석할 수 있다.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ㅣ'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모음 'ㅣ'가 탈락하였다. '아니오[아니요]'는 모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아니-' 뒤에 모음 'ㅗ'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반모음 'ㅣ[j]'가 첨가되었다.

06 '폭발'은 'ㄱ'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ㅂ'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폭빨]로 발음한다. '주꾸미'의 표준 발음은 [주꾸미]이다. '족집게'는 첫 음절의 받침 'ㄱ' 뒤에서 'ㅈ'이 된소리로 바뀌고, 두 번째 음절의 받침 'ㅂ'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족찝께]로 발음한다. '장아찌'의 표준 발음은 [장아찌]이다. '구레나룻'의 표준 발음은 [구레나룯]이다.

07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하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합쳐져서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② '좋지'는 [조치]로 발음되는데, 'ㅎ'과 'ㅈ'이 합쳐져서 거센소리 'ㅊ'이 된 결과이다.
⑤ 음운의 축약이 일어날 때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표기된 음운에서 한 개의 음운이 줄어든다.

08 ㉢은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09 유음화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백마강'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어 [뱅마강]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백마강'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곡물[공물]', '굳는[군는]', '입는[임는]'은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으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③ '실내[실래]', '관리[괄리]'는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10 '행복해'의 발음은 [행보캐]로, 예사소리인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인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할 수'의 발음은 [할쑤]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ㅅ'이 'ㅆ'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평가 기준	평가
㉠과 ㉡의 올바른 발음과 각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모두 정확히 썼다.	상
㉠과 ㉡ 중 하나만 올바른 발음과 각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정확히 썼다.	중
㉠과 ㉡ 중 하나만 올바른 발음을 썼다.	하

11 〈상황 3〉에서 '동희'는 축구를 잘하냐는 '화성'의 물음에 축구를 아주 잘한다고 장황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자신없는 태도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분석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2 '민찬'의 말은 터키 음식을 파는 식당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없을 것 같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식당에는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절의 의미를 내포한다. 대화 참여자들이 협력의 원리 중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특정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대화 함축'이라고 한다.

13 대화의 원리는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 가기 위한 것으로(ㄱ),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등이 해당한다(ㄴ). 이 중 체면 유지의 원리는 상대방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으로, 이 원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ㄹ).

오답 풀이 ㄷ.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보기 2〉에서 '학생 4'는 자신을 추켜세우는 '학생 3'의 말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 1〉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학생 1'의 탓으로 돌려 말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격률을 어겼다.
② 〈보기 1〉에서 '학생 2'의 말을 관용의 격률에 따라 수정한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
③ 관용의 격률에 따라 '학생 2'의 말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⑤ 〈보기 2〉의 '학생 4'는 "내가 워낙 게을러서 숙제를 제때 못해서 할 수 없이 휴일에도 공부를 하는 것뿐이야."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 '종현'은 여러 사람 앞에서 '원영'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원영'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따라서 '원영'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원영'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상
'원영'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문장으로 수정하지 못하거나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수정하지 못하였다.	중
'원영'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문장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으로도 수정하지 못하였다.	하

16 '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속담은 '말이 씨가 된다'이다.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에 해당한다.
②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에 해당한다.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에 해당한다.
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에 해당한다.

17 (나)에서 '김 선생'은 마당에 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술안주로 채소만 내어 주는 주인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닭을 요리하여 대접해 달라는 의도를 완곡하고 재치 있게 말하고 있다.

18 (나)의 '김 선생'은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완곡하게 말하기', (다)의 '사 소저'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게 말하기'를 사용하였다. '사 소저'는 '노야, 누실, 황공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있다.

대단원 평가 ❷

185~189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④ **10**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⑤ **15** 신중하게 말하기 **16** ① **17** (가)의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고, (나)의 '사 소저'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방식은 '겸손하게 말하기'이다. **18** ③ **19** ④

01 우리말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일곱 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02 '권력가'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먼저 첫음절의 종성 'ㄴ'이 유음 'ㄹ'으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궐력가]가 된다. 다음으로 예사소리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궐력까]로 발음된다. 유음화와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해당하고, 교체가 일어날 때는 음운의 수가 변화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광안리'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광알리]로 발음한다. 교체가 한 번 일어나고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② '습득물'은 'ㅂ' 뒤의 예사소리 'ㄷ'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습뜩물]이 된 다음, 음절 말 파열음 'ㄱ'의 비음화가 일어나 [습뜽물]로 발음한다.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음운의 수에 변화가 없다.
③ '집안일'은 'ㄴ' 첨가가 일어나 [지반닐]로 발음한다.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는 한 개 늘어난다.
⑤ '식용유'는 'ㄴ' 첨가가 일어나 [시굥뉴]로 발음한다.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는 한 개 늘어난다.

참고 자료

표준 발음법 제7장 음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03 〈보기〉는 비음화에 관한 발음 규정이다. '줄넘기'는 [줄럼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ㄴ'이 유음 'ㄹ'의 뒤에서 유음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 뒤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오답 풀이 ①'흙만[흥만]'은 'ㄱ(ㄺ)'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② '쪽문[쫑문]'은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③ '법망[범망]'은 'ㅂ'이 'ㅁ'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④ '꽃망울[꼰망울]'은 'ㄷ(ㅊ)'이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04 ㉣은 '아프-+-아'가 결합된 형태로, 용언의 어간 끝 모음인 'ㅡ'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ㅏ'가 결합하여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05 '건너'는 '건너-+-어'로 분석할 수 있다.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ㅓ'가 같은 모음 '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ㅓ'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모아서'는 '모아-+-아서'로 분석할 수 있다. 용언의 어간 말 모음 'ㅏ'가 같은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ㅏ'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오답 풀이 ① '한라산'은 유음화가 일어나 [할:라산]으로 발음하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떠'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떠]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② '밥만'은 비음화가 일어나 [밤만]으로 발음하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가'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가]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③ '듣고'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듣꼬]로 발음하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써'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써]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④ '논리'는 유음화가 일어나 [놀리]로 발음하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고파'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 [고파]로 발음하고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06 '세다', '잘리다', '수세미'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환경이 아니므로 [세다], [잘리다], [수세미]로 발음해야 한다. 된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말씨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 단어의 철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글을 쓰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된소리를 써야 할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07 '끝을'은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끄츨]이 아닌 [끄틀]로 발음해야 한다. '볶음밥'은 연음 현상이 일어나 [보끔밥]으로 발음한다. '볶음밥'에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요일'도 연음 현상이 일어나 [이료일]로 발음한다.

08 '김치를 담가.'가 맞는 표현이다. '담그-+-아'에서는 모음 'ㅡ'가 탈락하는데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므로 '담가'로 표기해야 한다.

09 '더듬지'는 어간 '더듬-'의 받침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바뀌어 [더듬찌]로 발음한다. '신고'는 어간 '신-'의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바뀌어 [신:꼬]로 발음한다.

10 '같이'는 [가치]로, '굳이'는 [구지]로 발음한다. 이는 실질 형태소의 받침에 오는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평가 기준	평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완성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1 '질의 격률'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것으로,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주관성을 배제한 내용만을 전달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② 태도의 격률에 따르면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③ 관련성의 격률에 따르면 대화의 목적과 주제에 알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양의 격률에 따르면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

12 '후배'는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자는 '선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배'의 잘못을 지적해 '선배'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13 〈상황 2〉에서 '민지'가 특정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관련성의 격률)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 함축이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연'은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겼다. '수연'의 말에는 아직 예약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대기실에서 기다리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② '민지'는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어겼다.
④ '주은'은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어겼다.
⑤ '주은'이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에 따라 상대방의 질문에 맞는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말한다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예선'은 '정후'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예선'에게 칭찬의 격률에 따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해 볼 것을 조언할 수 있다. '정후'는 '예선'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단박에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후'에게 동의의 격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5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거칠어지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된다는 말로, 말이 많음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신중하게 말하기'와 관련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신중하게 말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2어절로 썼다.	상
'신중하게 말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썼으나 2어절로 쓰지 못했다.	중
'신중하게 말하기'와 관련 없는 내용을 썼다.	하

16 (가)의 학생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고, (나)의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다.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 관습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나)보다는 (가)가 우리말의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 가까운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예의 바른 느낌을 줄 수 있다.
③ 겸손하게 말하면 겸손한 표현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④ 직접적으로 말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⑤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이 오히려 거만하다는 느낌을 주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17 (가)의 학생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고, (나)의 '사 소저'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방식은 '겸손하게 말하기'이다.

평가 기준	평가
(가)와 (나)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하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이 '겸손하게 말하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가)나 (나)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이 '겸손하게 말하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8 (라)는 수필 갈래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글에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 등이 해당한다.

참고 자료

개성이 드러나는 글 쓰기

일상적인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글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아의 성장과 언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 글쓴이는 남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남과 끊임없이 뭔가를 나누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맥락상 ㉠에 들어갈 말로 '나하고 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알맞다.

3 소통으로 엮는 삶

01 문학으로 소통하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193쪽

1 O 2 O 3 O 4 X 5 O

확인 문제 194~195쪽

1 ③ 2 ② 3 본질적 자아 4 ②

1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시적 화자의 시선이 천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미래를 다짐하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길', '돌담', '쇠문' 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② 이 시의 2연에서 '돌'을 연달아 사용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이 시의 7연에서 문장 부호인 쉼표(,)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의 4연에서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올려다본 푸른 '하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내면적 결의를 다지고 있다.

3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 즉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4 '담 이쪽'에 있는 시적 화자는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돌담'과 '쇠문' 때문에 '담 저쪽'으로 쉽게 가지 못한다. '돌담'과 '쇠문'은 시적 화자가 있는 현실 세계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소단원 평가 206~207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④
08 ④ 09 ②

01 시적 화자의 시선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1~4연에서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시적 화자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5연에서는 미래를 다짐하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02 이 시에서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화자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나 삶의 방향을 상징한다. '돌담'과 '쇠문'으로 막혀 있는 '길' 위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03 이 시에서 '돌담'과 '쇠문'을 기준으로 '담 이쪽' 세계와 '담 저쪽' 세계로 나뉘는 것은 맞지만, '담 이쪽'에 있는 시적 화자가 '쇠문'을 열거나 '담'을 넘어 '담 저쪽'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에서 돌담을 끼고 길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③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에서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길을 걸어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④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 길에 나아갑니다.'에서 시적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에서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돌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04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담'은 시적 화자의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 시적 화자의 높은 도덕적 경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담 이쪽'은 시적 화자의 현실적 자아가 현재 위치한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
④, ⑤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자, 시적 화자의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이다.

05 이 시에서 '길'은 잃어버린 시적 화자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서 자아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06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학 소통을 위한 다양한 맥락에 따른 감상 방법

작가 맥락	작가의 창작 동기나 심리 상태, 생애 등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사회 · 문화적 맥락	창작 당시의 사회적 가치나 제도,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 감상하기
문학사적 맥락	문학사의 흐름에서 작품이 차지하는 위상, 다른 작품과의 영향 관계 및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며 작품 감상하기
독자 맥락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며 작품 감상하기

07 7연에서 시구의 중간에 쉼표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8 ㉣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없이, 서술어 '잃어버렸습니다.'로 한 행을 구성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에서는 '돌'이라는 시어를 연달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의 '긴 그림자'는 쇠문이 굳게 닫힌 '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시적 화자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는 물 한 포기 없는 황량한 길의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09 '돌담'과 '쇠문'은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함축한다(ㄱ). '하늘'은 맑고 푸른 대상으로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이끌어 내는 소재이다(ㄴ). 시적 화자는 굳게 닫힌 '쇠문'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반면,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현실에 좌절하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ㅁ).

02 독서, 삶의 길 찾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09쪽

1 O **2** O **3** X

활동 1, 2 확인 문제 213쪽

1 (1) O (2) X (3) O (4) O **2** 대조 **3** ③

1 (1) 진로 탐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흥미와 특기, 희망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2)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다양한 출처의 글이나 자료를 통합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3) 자신의 어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기 자료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읽기 자료에 제시된 중요한 정보나 논점 등을 파악해야 다양한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비교·대조하며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을 말한다.

3 주제 통합적으로 읽은 자료는 글 또는 자료의 제목과 글쓴이, 인상 깊은 내용, 새로 알게 된 내용,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활동 3 확인 문제 217쪽

1 ㉠ – ㉢ – ㉡ **2** (1) O (2) X **3** 매체 **4** 잘 아는 내용의 글이나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1 진로 탐색을 위한 읽기는 진로나 관심 분야 탐색하기(㉠) →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 → 주제 통합적 읽기 결과 공유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 (1)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이므로, 읽기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2) 읽기 결과를 정리할 때는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3 책 소개 영상 제작, 메타버스를 활용한 발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토론, 서평 작성 및 학교 누리집 게시 등은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4 잘 아는 내용보다는 읽기 목적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다.

소단원 평가 222~223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8** ② **09** ② **10**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다.

01 자신의 한 달 용돈을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로, 이에 답해 보며 진로를 탐구해 나갈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다.
⑤ '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행동과 미래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02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먼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한 후 이와 관련된 글 또는 자료를 찾아 읽기 계획을 세운다(ⓒ). 그다음으로 읽기 계획에 따라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주제 통합적으로 읽은 후(ⓑ), 읽기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한다(ⓐ).

03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평가 기준은 자신의 읽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독서 경험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자료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통된 화제나 주제를 깊고 폭넓게 탐구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주제 통합적 읽기

동일한 화제에 대해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이나 자료를 비교·대조하며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양한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읽는 방법이다. 동일한 화제를 다양한 형식이나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글과 자료를 읽으면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글이나 자료를 통합적으로 읽으면서 화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다.

05 글이나 자료를 주로 읽은 장소는 읽기 결과에 정리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읽기 결과는 글이나 자료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이유, 글이나 자료의 주요 내용 및 인상 깊은 구절, 글이나 자료에 대한 독자로서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06 (가)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심리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사실들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심리학이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 심리학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보고, 정신 건강을 중요시하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에서 색깔이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이는 시각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7 (가)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특징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08 (나)는 색깔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09 '축적하다'는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모으다'나 '쌓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의존하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기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하면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발표 및 토론 등과 같은 독서 활동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활동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주술 호응이 맞는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참고 자료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 공유하기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
• 책 소개 영상 제작하기 •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서 토론하기 • 서평을 작성하여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기

↓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활동을 다채롭게 할 수 있음.

대단원 평가 1 230~234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돌담'은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담 이쪽'은 현실의 세계이고,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06** ③ **07**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08** ① **09** ③ **10** ② **11** ③ **12** 시적 화자는 맑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13** ① **14** ④ **15** ① **16** ① **17** ④ **18** ⑤ **19** ⑤ **20** 책을 읽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흥미와 적성 및 관심사 등을 확장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다. **21** ④ **22** ① **23** ⑤ **24** ⑤

01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독자 맥락'을 고려한 감상 방법이 있다. 독자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할 때는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독자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독자의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배제하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이 시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다.

03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시적 화자의 시선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시적 화자가 현실에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천상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미래를 다짐하고 염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참고 자료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

	1~4연	5연
시선의 이동	지상(돌담)	천상(하늘)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	고뇌와 절망	미래에 대한 다짐과 염원

04 시적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길을 걷고 있다.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길은 시적 화자가 걷는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표현한다. 시적 화자는 '풀 한 포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 어두운 시대 현실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평이한 시어와 '-ㅂ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 짓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다.

05 이 시에서 '돌담'은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리고 '담 이쪽'은 현실 세계로 현실적 자아가 있는 곳,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평가
'돌담'의 의미를 포함하여, '담 이쪽'과 '담 저쪽'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돌담'의 의미를 포함하였으나, '담 이쪽'과 '담 저쪽'의 의미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돌담'의 의미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하

06 이 시에서 '길'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며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이 길을 걸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본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07 이 시의 2연에서 '돌'이라는 시어를 연달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08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의 억압 속에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독자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본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09 '무얼' 잃어버렸다는 상황은 알 수 있으나, 그 잃어버린 대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첫 행을 주어나 목적어 없이 서술어만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②, 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에 나아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0 쉼표는 일종의 휴지, 즉 끊어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표지이다. 시인은 시구의 중간에 쉼표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쉼표로 호흡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분위기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⑤ 시적 화자는 자아 성찰의 결과 내면적 결의를 다지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이나 단절감과는 관련이 없다.
④ 시적 화자는 단호하게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시적 화자의 정서에 점층적으로 몰입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담(㉠)'은 시적 화자의 본질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부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쇠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로 '담'의 폐쇄성을 견고하게 하여 '담'의 부정적인 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길 위에 드리운 '그림자(㉢)'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한다.

12 '하늘'은 맑고 푸른 대상으로, 시적 화자에게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시적 화자는 우러러본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다고 말하며,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하늘'의 속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서술하였다.	상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서술하였으나 '하늘'의 속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중
'하늘'의 속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지 않았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의 원인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13 작품을 감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문학 비평가의 전문적인 해석보다는 독자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윤동주의 시 「길」의 마지막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창작하고 공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고민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먼저 시의 마지막 구절을 제시하고 그 구절에 대한 부분 창작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⑤ 다른 작품과 엮어 읽거나,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는 내용은 없다.

15 아직 꿈으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에 '나의 꿈을 찾는 까닭입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자신도 같은 고민이 있다고 말하며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댓글이므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불편한 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⑤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17 주제 통합적 읽기란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을 말한다.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양한 형식이나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글과 자료를 읽으면서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신과 동일한 관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18 〈보기〉는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다.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하면, 독서 결과를 다채롭게 전개할 수 있고,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19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점검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수용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20 진로 탐색 시 읽기 활동은 해당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흥미와 적성, 관심사 등을 확장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진로와 연관된 학업과 교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걸음'이란 단어를 활용하여, 진로 탐색 시 읽기의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였다.	상
'걸음'이란 단어를 활용하여, 진로 탐색 시 읽기의 효과를 한 가지 서술하였다.	중
'걸음'이란 단어를 활용하여, 진로 탐색 시 읽기의 효과를 한 가지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21 '정후'는 심리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기 위해 관련 인터뷰 자료를 읽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신이 직접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선주'는 심리학이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그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② '현민'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았다.
③, ⑤ '선주'는 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더 알고 싶은 심리학』이라는 책의 목차에서 심리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22 (나)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이에 대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찾으며 나누는 대화이다.

오답 풀이 ② 심리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논쟁은 하고 있지 않다.
③, ④, ⑤ 본격적으로 책이나 자료를 읽기 전의 활동으로,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선정하고 있다.

23 (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읽을 글이나 자료를 선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공유해야 한다. ⑤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다)에서 '선주'가 심리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더 찾아봐야겠다고 했으므로, 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한 자료가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❷ 235~239쪽

01 ④ **02** 본질적 자아를 되찾기 위한 성찰의 과정이다. (또는 시적 화자의 인생행로의 의미를 지닌다.) **03** ③ **04** 담 저쪽 **05** ③ **06** ⑤ **07** ③ **08** ⑤ **09** ① **10** ③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주제 통합적 읽기 **18** ① **19** ② **20** 책 소개 영상 제작하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서 토론하기 등 **21** ②

01 이 시는 상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경어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02 이 시에서 '길'은 시적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려는 여정의 상징으로, 시적 화자는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되찾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본질적 자아를 되찾기 위한 성찰의 과정이라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
인생행로의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을 썼다.	☐
주술 호응이 맞는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3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시선이 지상(1~4연)에 머물러 있을 때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천상(5연)으로 향하는 순간부터는 미래를 다짐하고 염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04 '담 저쪽'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자,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인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곳이다.

05 [A]는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즉, 시간의 순환성을 형상화하여 자기 탐색이라는 행위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6 이 시에서 '담'은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길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는 시적 화자가 길을 걸으며 느끼는 고독과 불안, 절망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이 시에서 '하늘'은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이끌어 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시적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본모습을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를 인식하

고 보인 반응으로, 이는 '담 저쪽'에 있는 본질적 자아를 찾도록 시적 화자를 북돋운다.

08 이 활동은 시의 마지막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창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나 강점 및 약점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09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 쉼표를 두 번 사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10 이 글은 비평문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윤동주의 시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11 이 글의 글쓴이는 윤동주의 시가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하고(ㄹ), 이와 관련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고민을 언급하였다(ㄷ). 그리고 마지막에 윤동주 시의 한계와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ㄴ).

12 ⑤는 윤동주의 시가 오늘날의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감상한 내용으로, 독자 맥락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황량한 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4 〈보기〉의 내용은 진로 탐색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다.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5 이 활동은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하고, 읽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는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나 진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6 자신의 어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읽기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낯선 분야일수록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7 동일한 화제에 대해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이나 자료를 비교·대조하며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룬 다양한 형식의 글이나 자료를 읽는 방법을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한다.

18 (가)는 심리학과 삶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고, (나)는 색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글이다. 즉 (가)와 (나)는 심리(또는 심리학)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기사문의 구성

표제	기사의 제목. 중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함.
부제	표제의 내용을 보완함.
전문	표제의 내용을 요약문의 형식으로 자세하게 밝혀 놓음.
본문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을 자세히 기술함.
해설	본문 뒤에 덧붙여 사건의 전망이나 분석, 평가 등을 제시함.

19 (가)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색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자료에서 심리학이 왜 가치 있는 학문인지를 확인한 학생이, 이러한 심리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나)의 자료를 더 찾아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0 매체를 활용하면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발표 및 토론 등과 같은 독서 활동을 더욱 다채롭게 할 수 있다.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에는 책 소개 영상 제작하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 토론하기, 서평 작성 및 누리집 게시 등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활용한 매체의 종류와 독후 활동의 유형을 함께 제시하여 세 가지 이상 썼다.	상
활용한 매체의 종류와 독후 활동의 유형을 함께 제시하여 두 가지 썼다.	중
활용한 매체의 종류와 독후 활동의 유형을 함께 제시하여 한 가지 이하 썼다.	하

21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을 평가할 때는 읽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이나 자료를 수집했는지, 수집한 자료에서 읽기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였는지 점검한다. 읽기 결과를 공유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였는지 돌아본다.

오답 풀이 ㄴ.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이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친구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가 아닌 자신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ㄷ. 수집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은 읽기 목적이다.

4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

01 비판적 읽기와 주체적 수용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43쪽

1 X 2 O 3 O

확인 문제 244~247쪽

1 ③ 2 동물의 권리 3 ② 4 이성, 언어

1 이 글에 '비일비재(非一非再)'라는 사자성어가 사용되었으나, 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킬 뿐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공장식 축산을 위해 좁은 틀에 가둔 닭,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울타리 안에 가둔 코끼리의 사례를 들어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인간의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② (나)에서는 척추동물의 신경 체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④ (가)에서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의 형태를 활용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듯, 동물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이 글은 동물의 권리를 중심 화제로 하여,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3 (라)의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을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에서 유명 인사의 견해가 근거 자료로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글쓴이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달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종 차별주의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고 해도 성별과 인종의 구별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성별과 인종에 따른 대우가 차별적인 것은 아니다. 〈중략〉 다만 상당수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은 바로 그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감응력)과 관련해서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을 자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사육한 후 도살하거나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산 채로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필연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게 되므로, 육식과 동물 실험은 가장 대표적인 종 차별주의적 관행이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런 관행에 반대하는 것이다.

– 최훈,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종 차별주의』

소단원 평가 260~263쪽

01 ④ 02 ④ 03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04 ① 05 ⑤ 06 ② 07 ④ 08 ② 09 ① 10 ⑤ 11 ② 12 ⑤ 13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14 ③ 15 ④ 16 ④

01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및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전개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따라서 논설문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견에 무조건 공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이나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논설문은 '서론 – 본론 – 결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성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읽어야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 논설문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글쓴이가 제시하는 이유와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③ 논지 전개 방식은 글쓴이가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선택한 것이므로 논설문을 읽을 때 파악해야 할 요소이다.
⑤ 논설문을 읽을 때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어야 글쓴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동물도 타고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하므로 동물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인간은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자신이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을 통해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인종 차별과 종 차별을 비교하며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닭과 코끼리를 예로 들어 인간은 동물을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가)에서 동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나)~(라)에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글쓴이의 주장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글쓴이의 주장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글쓴이의 주장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4 (나)에서는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안다.'와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를 바탕으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인 '귀납'에 해당한다. '모든 생물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사람은 생물이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그러므로 사람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연역'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모두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인 귀납이 쓰였다.

05 (다)에서 글쓴이는 인종 차별주의자가 피부색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차별하듯이 종 차별주의자는 생물학적 '종'을 기준으로 삼아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차별한다고 하였으며, 피부색과 종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자는 특정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요소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종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가 불평등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원인을 제거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평등한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종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이러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다)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는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흑인 노예 제도나 흑백 분리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에서 인종 차별주의와 관련한 사회적 제도나 정책 등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6 ㉠과 ㉡은 논증 요소 중 '근거'에 해당한다.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내세우고자 하는 의견은 '주장'이다.
③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은 '이유'이다.
④ 내용을 종합하여 비판 및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⑤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은 '예상 반론'이다.

07 〈보기〉는 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의제를 다룬 매체 자료이다. 사회적 의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만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고 사회적인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논증 요소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체 자료 수용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② 매체 자료의 주장이 특정한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야 한다.
③ 매체 자료에서 근거로 삼은 내용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매체 자료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08 이 글은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이다. 따라서 '(인정받아야 할) 동물의 권리'가 이 글의 중심 화제이다.

오답 풀이 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은 이 글에서 동물을 생명체로 대하지 않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언급한 내용으로, 글쓴이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③ '종 차별과 인종 차별의 차이점'은 이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④ '동물의 권리와 다른 인간의 권리'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이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동물의 본능을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글쓴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일 수는 있으나, 이 글의 중심 화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서 글쓴이는 스티븐 핑커가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동물 학대 건수가 줄자 이와 함께 성차별, 아동 학대 등이 함께 줄었음을 보여 주며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동물이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권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0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다. 글쓴이의 주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논증에서 주장의 명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주장은 독자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②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③ 근거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④ 이유와 근거는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11 ㉠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다시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의 주장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이다.
③ ㉠에 대한 근거로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과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⑤ (나)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12 '관행'은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을 의미한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여 놓은 것.'은 '규정(規定)'의 뜻이다.

13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글쓴이가 예상 반론을 제시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글쓴이가 예상 반론을 제시한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글쓴이가 예상 반론을 제시한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4 (다)에서는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와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방법인 '연역'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

논증 요소	• 주장: 내세우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견 • 이유: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 근거: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논증 방법	• 연역: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참인 두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 논법이 이에 속함. • 귀납: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일반화 논증과 두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유추 등이 이에 속함.

15 (라)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잘못된 관행을 언급하고 인권과 비교하며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라)에서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거나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라)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다.

16 〈보기〉는 '동물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궁극적으로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제시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보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대측의 입장을 강화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동물권과 인권을 구분하는 개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종 차별주의자들은 동물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종 차별주의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뿐 동물이 인간에게 존중받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265쪽

1 O **2** O **3** O

활동 1 확인 문제 ✦ 266~275쪽

1 ③ **2**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3** (1) O (2) X (3) O **4** ⑤ **5** (1) 상대 (2) 입론 **6** (1) O (2) O (3) X **7** ④ **8** (1) X (2) O **9** (1) 연구 논문 (2) 신뢰성 **10**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투자 대비 세금 낭비이다. **11** ③ **12** 타당성

1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반대 2의 반대 신문 뒤에 반대 1의 입론이 제시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1의 입론 – 반대 2의 반대 신문 – 반대 1의 입론 – 찬성 1의 반대 신문 – 찬성 2의 입론 – 반대 1의 반대 신문 – 반대 2의 입론 – 찬성 2의 반대 신문 – 반대 1의 반론 – 찬성 1의 반론 – 반대 2의 반론 – 찬성 2의 반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찬성 측 제1 토론자는 가뭄 일수와 산불 발생 빈도의 증가량, 그리고 인공 강우 실험 성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입론하였다.

3 (1)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자료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찬성 1의 해석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묻고 있다.
(2) 반대 1은 찬성 1이 제시한 자료와는 무관하게 세계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산불 발생의 원인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인공 강우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3)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는 인공 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가?'이다.

4 반대 측 제1 토론자는 입론에서 찬성 1이 제시한 주장을 언급하며 세계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및 산불 발생의 원인 통계 결과, 지구 환경학 교수와의 인터뷰, 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5 (1)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 질문자는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에 임해야 한다.
(2) 반대 신문에서 답변자는 질문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자신이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은 내용으로 답변해야 한다.

6 (1) 사회자는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2) 반대 1은 2021년에 미국의 설문 조사 업체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찬성 1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3) 찬성 1은 반대 1이 제시한 미국의 설문 조사 결과는 외국의 사례이므로, 우리나라의 여론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7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은 반대 1의 주장에 해당한다. 오히려 찬성 2는 이를 두고 인공 강우 기술의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로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8 (1) 찬성 2는 반대 2가 언급한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며 반대 2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 2가 준비하지 못한 근거 자료를 추가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반대 1은 찬성 2가 제시한 '인공 강우가 미세 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9 (1)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진행하자 찬성 2는 '1밀리미터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의 미세 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2) 반대 2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국정 감사와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의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신뢰성의 기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다.

10 반대 2는 2022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인공 강우 실험에 투여된 비용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인공 강우 실용화는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11 찬성 2는 반대 측이 제시한 물 절약 캠페인이 가뭄과 산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며,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려면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물 절약 캠페인과 가뭄철 급수 제한은 모두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이다.
④ 찬성 측은 인류에게 물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반대 1이 인공 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찬성 측이 인공 강우 규약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12 토론의 평가 항목 중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 살펴보는 것과 관련 있다. 이외 평가 항목으로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와 관련 있는 '신뢰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와 관련 있는 '공정성' 등이 있다.

활동 2 확인 문제 ✦ 279쪽

1 주장 **2** ⑤ **3** (1) O (2) X **4** ③

1 토론을 할 때는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2 '반대 신문'은 상대측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오답 풀이 ① '논제'는 토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말한다.
②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토론에서 논의할 세부 주장을 말한다.
③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④ '증명'은 토론에서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토론의 논제와 필수 쟁점

토론은 어떤 논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말하기이다. '논제'는 토론의 주제이며,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을 말한다. 어떤 정책을 도입, 실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정책 논제의 경우 논제로 제기한 문제가 심각한지, 제시된 방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지, 그 방안을 실행하여 어떤 효과 및 개선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 필수 쟁점이 된다.

3 (1) 입론할 때는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찬성 측은 쟁점별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논증을 구성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을 반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한다.
(2) 입론은 찬성 측부터 시작하고,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4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감정적인 발언은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토론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은 약속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담화이다. 따라서 토론 참여자는 발언 순서와 시간을 준수하여 토론에 임해야 한다.
② 토론에서는 상대측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측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행동 등은 올바른 토론 태도가 아니므로 지양한다.
④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상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상대측의 주장에 논리적 오류나 비약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토론의 올바른 의사소통 과정

-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토론 규칙 및 발언 시간을 준수한다.
- 명확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한다.

소단원 평가 284~287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7** 상대측 논증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08** ⑤ **09** ② **10** ⑤ **11** ⑤ **12** ② **13** ④ **14** ①

01 토론은 찬반으로 서로 대립하는 논제에 대해 각자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는 말하기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의사소통 방법은 토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 반대 신문 – 반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를 각각 2명씩 구성한다.
② 이 토론의 논제는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토론의 목적과 의의

토론은 민주 사회에서 의견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대화나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될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의 목적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승패를 결정지어 상대측을 제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대립하는 쟁점에 대하여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를 이해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02 사회자는 (가)에서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소개하며 발언할 토론자를 지정하고 있고, (나)에서도 토론 절차에 따라 발언할 토론자를 지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토론자를 심사자와 청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지만 이 토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토론 규칙과 순서를 잘 지켜서 발언하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며,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심사자가 안내하지는 않는다.
④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지만 이 토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⑤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토론자의 역할이다. 사회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03 〈보기〉는 정책 논제에 대한 설명으로,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룬다.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04 찬성 측이 인공 강우 실용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인공 강우 실용화를 위한 세부 계획은 이 토론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찬성 1이 입론에서 인공 강우와 실용화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② (가)에서 찬성 1이 문제의 심각성 측면에서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 일수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 인공 강우의 실험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에서 반대 2는 반대 신문을 통해 우리나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1위를 사람의 실수라고 제시하고 있다.

05 찬성 1은 입론에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이 토론의 핵심 용어인 인공 강우와 실용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②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쟁점에서 찬성 1은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찬성 1은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 강우의 실용화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⑤ 찬성 1은 가뭄 일수와 산불 발생 빈도 증가량, 인공 강우의 실험 성과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6 (나)는 찬성 1이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답하며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에 따라 반대 1의 입론과 찬성 1의 반대 신문이 이어져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양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토론의 가장 마지막 과정으로 제시된다.
④ 반대 2의 주장에 대한 반대 1의 보강 발언은 반론에서 이루어진다.
⑤ 찬성 1의 입론과 그에 대한 반대 2의 반대 신문은 토론을 시작할 때 진행된다.

07 반대 신문은 입론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대측의 주장에 있는 문제점을 부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평가
반대 신문의 의미와 관련지어 반대 신문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반대 신문을 하는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반대 신문의 의미와 관련짓지 못하였다.	중
반대 신문을 하는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8 반대 신문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하는 것으로,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필수 쟁점은 토론의 준비 단계에서 논증을 구성하며 설정해야 한다.
②, ③, ④ 입론 단계에서 설정해야 하는 내용이다.

09 이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찬성 측의 입론에서 시작하여 찬성 측의 반론으로 끝이 난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가 입론을 하면 반대 신문은 반대 1이 진행한다.
③ 반론은 반대 측에서 먼저 시작하며, '반대 1 → 찬성 1 → 반대 2 → 찬성 2'의 순으로 양측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므로, 찬성 측의 반론으로 끝이 난다.

④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입론으로 밝힌 쟁점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면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나면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다.

10 반대 신문에서 답변자는 상대측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거나 상치되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반대 신문을 할 때 질문자는 상대측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며 상대측의 발언 속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해야 한다. 또한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나 통계 수치, 사례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정확한지 파악해야 한다.
④ 답변자는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한 뒤 명료하게 답변해야 한다.

11 (다)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 실용화가 투자 대비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국정 감사 자료와 세계 보건 기구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찬성 2는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투자 대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④ (다)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고, 화학 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공 강우의 실용화는 투자 대비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토론을 할 때는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중 '신뢰성'은 제시된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③, ⑤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였는가?'는 토론 참여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질문이다.
④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가?'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질문이다.

13 ㉠의 '들다'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의료 민영화는 금지해야 한다.'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심폐 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에 해당하므로, 찬반양론이 성립되지 않는 논제이다.
③ '성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논제에서 '성실한'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보기〉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④ '휴가지는 유럽보다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찬반양론이 성립되지 않으며 공동체에서 논의해야 하는 논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⑤ '안락사와 사형 제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안락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와 '사형 제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논제로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1

292~296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과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6** 갓난아이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인간이라는 이유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인종 차별주의와 같은 논리이다. **07** ④ **08** ② **09** ④ **10**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예방하는 데 인공 강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③ **12** ⑤ **13** ③

01 이 글에서 글쓴이는 '종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를 들어 피부색이나 종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② (가)에서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처럼 질문의 형태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 공장식 축산을 위해 틀에 갇힌 닭과 사람들의 관람을 위해 동물원 울타리 안에 있는 코끼리의 예를 나열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
④ (나)에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여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02 (라)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 글쓴이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알면서,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인간과 동물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나)에 과학자들이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다)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과 같은 차별임이 제시되어 있다.
④ (라)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라고 제시되어 있다.

03 이 글은 논설문으로, 논설문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다. '본론'을 읽을 때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 내용의 점검은 '결론' 단계에서 본론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이루어졌을 때 수행할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서론'에는 주로 글쓴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그 배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②, ④ '본론'에는 주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드러난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논증 방법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⑤ '결론'에는 주로 본론 내용의 요약과 새로운 과제나 전망이 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04 (나)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안다.'와 '동물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라는 개별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참일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이 사용되었다.

05 글쓴이는 (라)에서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저서를 통해 폭력과 야만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고 하였고,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도 드러냄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스티븐 핑거의 저서와 간디의 견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세 번째 이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라)에 나타난 근거 자료 두 가지를 모두 쓰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라)에 나타난 근거 자료 두 가지를 모두 썼으나, 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라)에 나타난 근거 자료의 종류와 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6 (가)에서 글쓴이는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갓난아이'를 예로 들어 반박하고 있다. 글쓴이는 갓난아이가 우리와 같은 인간 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인종 차별주의자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글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고, 〈조건〉에서 제시한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상
글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였으나, 〈조건〉에서 제시한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중
글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조건〉에서 제시한 단어도 사용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나)에서 글쓴이는 '야생 동물의 타고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기르는 동물원'이라며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관행이 나타나는 사례로 동물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강조하는 화면은 광고의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나)에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의 관행이 나타나는 상황과 동물권의 기본을 언급하며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물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동물권은 동물이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본래의 자연 환경에서 동물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

08 논증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논증 방법으로는 연역과 귀납이 있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귀납(㉢)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연역, ㉠이 귀납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 ⑤ 반박은 어떤 의견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반론은 다른 사람의 논설이나 논평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반박과 반론은 모두 논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유추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이다.

09 〈보기〉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 뉴스이다. 카드 뉴스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반대 측 제1 토론자는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예방하는 데 인공 강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조건〉에서 제시한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조건〉에서 제시한 단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주장을 서술하였다.	중
반대 측 제1 토론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1 찬성 1은 반대 측이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외국의 설문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여론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1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 강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12 정책 토론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논제로 진행되는 토론을 말한다. 제시된 논제가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한 근거로 입증되면 토론이 마무리되는 것은 토론 논제 중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정책 토론을 할 때는 주로 '~을/를 해야 한다.'는 형태의 논제로 진술되며,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논제로 제시된다. 이때 논제와 관련하여 변화를 주장하는 측이 '찬성 측'이 되고, 현 상황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반대 측'이 된다.

13 반대 신문식 토론은 크게 '사회자의 논제 안내 – 입론 – 반대 신문 – 반론 – 사회자의 토론 종료 안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은 입론에 대한 설명, ㉡은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 ㉢은 반론에 대한 설명, ㉣은 반대 신문에 대한 설명, ㉤은 토론의 마무리를 알리는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대단원 평가 ❷ 297~301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③ **09** ① **10**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11** ③ **12** ⑤ **13**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14** ③ **15** ①

01 (다)에서는 글쓴이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 내용과 민족 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구조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과학적 연구 결과라는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나)에서는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이를 반박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⑤ (마)에서는 동물권을 인권과 비교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02 (가)에 쓰인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귀납은 '닭은 알을 낳는다. 제비도 알을 낳는다. 까치도 알을 낳는다. 따라서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ㄹ).'와 같이 개별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ㄱ)이다.

오답 풀이 ㄴ과 ㄷ은 연역에 대한 설명이다.

03 ㉠~㉢은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한다.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오답 풀이 ① '주장'은 내세우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견이다.
③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④, ⑤ '예상 반론'은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대 의견으로, 글쓴이는 이를 예상하여 제기하고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그 의견에 '반박'한다.

04 이 글에서 글쓴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듯이 동물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철학자 피터 싱어의 주장이나 1970년대에 이루어진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동물원은 인간을 위해 동물의 욕구가 희생된 곳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원의 동물을 단순히 관람하며 즐기는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이 글에서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를 확인하여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진보되기 위하여 동물권에 대해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05 〈보기〉의 매체 자료는 카드 뉴스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와 ⓑ에는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효과'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적절하다.

06 토론의 논제는 구체적이면서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포괄적인 논제는 자칫 토론의 방향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토론은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밝혀 나가는 형식의 담화이다. 따라서 토론의 논제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 양론이 성립되어야 한다.
② 토론에서 다룰 중심 과제는 하나여야 하며, 단문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⑤ 토론의 논제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어야 그 가치가 있다.

참고 자료

논제 선정의 기준

- 명료성: 토론은 의견의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찬반의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명료한 논제를 선정해야 한다. 단일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하고자 하는 범위나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 시의성: 토론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탐색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는 만큼,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 공정성: 토론의 논제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면서 근거 자료가 양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

07 (나)에서 찬성 2는 반대 신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인공 강우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의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아랍에미리트가 인공 강우 선진국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는 구름이 필요하며, 구름을 만들 때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사회자는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는 토론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④ (나)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가 대략 50여 개국이라고 하였다.
⑤ (나)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는 봄과 겨울에 구름 없는 날이 많아 인공 강우가 쓰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08 (나)에서 반대 2는 국회와 세계 보건 기구라는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주요 용어의 개념을 확인하거나,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발언하고 있을 뿐, 사회자의 발언 내용을 보완하고 있지는 않다.
④ 반대 2는 찬성 2가 반박한 내용에 자신의 주장을 부연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9 ㉠은 반대 신문이다. 찬성 1은 반대 2의 주장과 근거에는 제시되지 않은,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는 반대 2의 주장에서 허점을 짚어 내기 위해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출처를 묻거나 내용의 적절성을 질문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반대 2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을 용어의 개념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측의 반박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 (나)와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양측은 인공 강우 실용화에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토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쟁점은 '인공 강우의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이다.

평가 기준	평가
필수 쟁점을 파악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상
필수 쟁점을 파악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필수 쟁점을 파악하여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1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발언 순서를 지키고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해야 한다.
② 주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내세워야 한다.
④ 반대 신문을 할 때 상대측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해서 질문해야 한다.
⑤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토론 참여자들의 역할 및 태도

토론자	•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움. •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함. •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함.
사회자	• 토론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진행함. • 논제에 대한 편입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야 함. • 토론자들의 주장이 논제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토론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함.
심판관, 청중	• 토론의 최종적인 승부를 결정함. • 토론자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여 토론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어 감. • 토론의 승부를 결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판단해야 함.

12 찬성 1은 반론에서 인공 강우의 실용화가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의 자격으로서 인공 강우 실험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반대 1은 인공 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어 국가 간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인공 강우의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② 찬성 2는 우리나라는 가뭄 때문에 급수 제한까지 거론되는 나라로,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는 데 인공 강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④ 찬성 2는 이미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 절약 캠페인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였다.

13 반론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고,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한다. 반론은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평가 기준	평가
반론이 무엇인지 쓰고, 반대 측부터 반론을 시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반론이 무엇인지 쓰거나 반대 측부터 반론을 시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반론이 무엇인지 쓰지 못하고, 반대 측부터 반론을 시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4 쟁점 3은 해결책(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이익(국민의 이익)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쟁점 1은 가공 음료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② 쟁점 2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당 섭취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④ 〈보기〉의 쟁점들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세부 주장에 해당한다.
⑤ 쟁점 1에 대하여 찬성 측은 국내 비만율 증가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15 입론은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식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대방에게 논제와 관한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형식이다. 주로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하며 크게 입론, 반대 신문, 반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반대 신문' 또는 '교차 조사'라고 부르는 질문은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다. 질문자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어 질문함으로써, 자기편이 유리하게 토론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 질문의 과정을 통해 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며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생각을 담는 말과 글

01 언어 실천 양상과 문법 요소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305쪽

1 O 2 X 3 O 4 X 5 O

활동 1 확인 문제 308쪽

1 언어 공동체 **2** ① **3** (1) O (2) X **4**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한다. 등

1 언어 공동체란 유사한 언어 사용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언어를 수단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 집단을 뜻한다.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부추'는 주로 서울 · 경기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정구지'는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 등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외에도 '부추'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솔', 제주도 지역에서는 '세우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대상이라도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경우 줄임말과 신조어 사용 등에서 언어 표현의 차이가 발생한다.
③, ④, ⑤ 성별, 직업, 문화도 언어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제시된 현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3 (1) 문화에 따라 언어 관습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문화의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다른 문화의 언어 관습이나 표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상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4 현재 남북한의 언어는 음운, 문법, 어휘, 화법, 어문 규범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은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해 교류하였다. 그리고 '겨레말 큰사전', '남북 의학 용어 사전' 등의 편찬으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활동 2 확인 문제 311쪽

1 ② **2** 사고 도구어 **3** (1) X (2) O **4** ⑤

1 '찬란하다'와 '형언하다'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오답 풀이 ① 고유어는 '발그레하다', '우두커니' 등 우리말에 예로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③ 외래어는 '버스', '벨'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④, ⑤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 신조어는 새로 만들어진 말을 뜻한다.

2 사고 도구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적절히 사용하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1) 고유어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만의 고유한 정서나 감정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말도 있어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어휘로, 어휘의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4 계급이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었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하거나 등질적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뜻의 '분화(分化)'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변별(辨別)'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린다는 의미이다.
② '변화(變化)'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③ '분산(分散)'은 갈라져 흩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④ '분석(分析)'은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눈다는 의미이다.

활동 3 확인 문제 322쪽

1 (1) X (2) O **2** 객체 **3** ⑤ **4**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용에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등

1 (1)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
(2)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을 직접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해당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쓴다.

2 높임 표현은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 행위의 대상에 따라 화자가 그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말한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표현,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으로 나뉜다.

3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상을 완료상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②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시제이다.

③ 미래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이다.
④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진행상'이라고 하며, 주로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 등으로 실현된다.

4 피동 표현은 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내용에 객관성을 높이거나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소단원 평가 328~331쪽

01 ④ **02** ④ **03** ③ **04** 전문어,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05** ① **06** ④ **07** ② **08** ③ **0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① **14** ① **15** ③ **16** ① **17** ④ **18**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러 가셨어.

01 제시된 상황은 같은 대상인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을 가리키는 어휘가 '부추'와 '정구지'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 자료

지역 방언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각 지방의 말이다.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지역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다른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02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의미가 분명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어휘의 종류는 한자어이다. '형언하다'와 '하치'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버스(㉠)'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에 속한다. '발그레하다(㉡)'와 '우두커니(㉤)'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에 속한다.

참고 자료

한자어

한자어란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 분명하고 자세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고유어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말 어휘 체계 내에서 공존해 오면서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어 '말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어에는 '설명(說明)하다', '변명(辨明)하다', '언급(言及)하다', '주장(主張)하다', '요청(要請)하다', '의미(意味)하다', '진술(眞術)하다', '해명(解明)하다', '대화(對話)하다' 등이 있다.

03 '분화(分化)'는 단순하거나 동질적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계급이 구분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변별(辨別)'은 두 대상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변천(變遷)'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꾸고 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분석(分析)'은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대상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쓰이므로 계급이 나누어지거나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⑤ '분산(分散)'은 갈라져 흩어진다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04 '인펙션(Infection: 감염), 바이아빌리티(Viability: 생존 능력),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폐 성숙 주사)'은 전문어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전문 개념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따라서 같은 집단 내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어휘의 종류가 전문어임을 정확히 쓰고, 전문어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어휘의 종류가 전문어임을 정확히 쓰거나, 전문어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어휘의 종류가 전문어임을 정확히 쓰지 못하고, 어휘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5 객체 높임 표현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강릉에 갔다.'는 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할머니'를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주체인 '아버지'를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③ 주체인 '할머니'를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④ 청자인 '할머니'를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⑤ 주체인 '할머니'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06 격식성과 공식성 같은 상황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인식이 변화하므로 이에 따라 높임 표현 역시 변화하게 된다. 제시된 장면의 화자는 친구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학급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다.

07 '음료'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나왔습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서명을 하는 주체는 상대방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③ 운동장으로 오는 주체는 '너'이므로 '오라고'가 적절하다. 말한 사람은 '선생님'이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④ '할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⑤ '할머니'는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여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이 문장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 방법도 함께 쓰였다.

08 '이루어질 거예요'는 '-(으)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어젯밤에', '내렸다'에 사용된 시간 표현으로 보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 '했다'에 사용된 시간 표현으로 보아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오늘부터', '시작하는', '방송입니다'에 사용된 시간 표현으로 보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⑤ '내일은', '불겠다'에 사용된 시간 표현으로 보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09 '이미'와 같은 표현에서 '누나'가 기차를 탄 시점은 과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추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화시를 기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뜻이 담겨 있지 않다.
③ '누나'라는 3인칭 주어가 사용된 평서문이다.
④ '-겠-'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는 '실례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등과 같이 표현된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10 현재와 단절된 상황은 '앉아 있었었다.'와 같이 '-았었-/-었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교실 맨 앞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다.'는 동작상 중 동작이 끝난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완료상이 나타난다. 완료상은 주로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되는데, '민호가 앉아 있다'는 본용언 '앉아'와 보조 용언 '있다'로 실현되고 있다.

11 '보여졌다'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에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보였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쓰인 적절한 문장이다.
③ 피동 접미사 '-리-'가 쓰인 적절한 문장이다.
④ 피동 접미사 '-히-'가 쓰인 적절한 문장이다.
⑤ 피동 접미사 '-리-'가 쓰인 적절한 문장이다.

12 주어에 해당하는 '흑돔'이 어민들에 의해 발견된다는 피동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견됩니다'는 시간 표현에서 현재 시제이다.
②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은 시간 표현에서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③ 높임 표현 중 주체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시간 표현에서 동작상에 대한 설명이다.

13 '생각되어집니다'와 '모여진'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에 '-어지다'를 결합한 것으로, 피동 표현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다. 능동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각 '생각합니다'와 '모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잘못된 피동 표현

능동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 피동이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14 직접 인용 문장에는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서 이미 축구를 하러 갔다는 과거의 상황으로 내용이 달라졌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르게 바꾸면, '민수가 축구하러 가자고 말했다.'이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라고' 대신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쓰였으며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15 상대 높임과 관련하여 화자가 청자를 낮추어 말하는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담겨'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② '될 것'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라고'는 직접 인용 표현이다.
⑤ '문학입니다', '있습니다.' 등에서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대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데, 종결 어미는 격식을 차려 상대를 깍듯하게 대하는 격식체와 거리감 없이 친근하게 상대를 대하는 비격식체로 나뉜다.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격식체를 주로 사용한다. 격식체는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느낌을,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16 인용절 다음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②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이-', '-히-', '-리-', '-기-'는 확인할 수 없다.
④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어 '어제', '아까', '이미' 등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인 '드리다' 등은 확인할 수 없다.

17 '닫혀지지'와 '닫혀져'는 모두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닫히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형용사 '바쁘-'와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바쁘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제품을 찾는 상대방은 '찾으시는'과 같이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반응'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좋아요'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모시고 오시래'는 '데리고 오라셔'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필요하다라고'는 '필요하다고'와 같이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를 써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8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는 주체 높임 표현의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를 객체 높임 표현의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사용하여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러 가셨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문장의 주어로 '아버지', 목적어로 '할머니'를 쓰고, 주격 조사 '께서'와 '모시다'의 활용형을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문장의 주어로 '아버지', 목적어로 '할머니'를 썼으나 주격 조사 '께서'와 '모시다'의 활용형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문장의 주어로 '아버지', 목적어로 '할머니'를 쓰지 못하였거나 주격 조사 '께서'와 '모시다'의 활용형까지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2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

질문으로 지식 깨우기 333쪽

1 O **2** O **3** X

활동 1 확인 문제 337쪽

1 (1) X (2) O (3) O **2** 논리적 순서의 원리

1 (1)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는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2)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3)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여 내용을 적절히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용 전개의 원리에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있다. 〈보기〉는 그중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

시간적 순서의 원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공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의 멀고 가까움이나 상하좌우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논리적 순서의 원리	연역이나 귀납과 같이 일반적 전제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열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함.

활동 2 확인 문제 341쪽

1 ⑤ **2** 문맥

1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는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 관심사, 요구 사항, 입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2 글을 쓸 때는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문법 요소, 어휘의 의미 및 효과를 고려하여 문맥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346~349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⑤ **07** ③
08 ⓐ 쓰기 맥락 ⓑ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 **09** ③ **10** ②
11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2** ④ **13** ③

01 이 글에서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냄으로써 누리 소통망의 활용을 줄일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단에서 누리 소통망의 발달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인기 누리 소통망 운영자였던 OO 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누리 소통망 사용에 회의감을 느끼고 누리 소통망을 끊은 인기 누리 소통망 운영자 OO 씨의 사례나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성의 목소리를 언급하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직장인 △△ 씨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정후'는 누리 소통망으로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며, 누리 소통망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할 뿐이라고 보는 이 글과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후'는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글을 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03 이 글은 누리 소통망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한다며 이러한 인간관계에 지쳐 누리 소통망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누리 소통망을 탈퇴하는 현상을 요약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과 진짜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을 잘 담고 있는 ④가 적절하다.

04 이 글의 본론에서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3문단에서는 인간관계를 강화해 주는 누리 소통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5 이 글의 첫 문단에서 오늘날 누리 소통망이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간 누리 소통망 이용률 추이에 대한 그래프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06 ㉠은 누리 소통망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시간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고, ㉡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해 준다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07 사회적 쟁점은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참고 자료

사회적 쟁점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8 쓰기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쓰기 맥락이라고 하며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 등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	평가
ⓐ에는 쓰기 맥락이라고 정확히 쓰고, ⓑ에는 쓰기 맥락에 해당하는 요소를 두 개 이상 썼다.	상
ⓐ에는 쓰기 맥락이라고 정확히 썼으나, ⓑ에는 쓰기 맥락에 해당하는 요소를 한 개만 썼다.	중
ⓐ와 ⓑ에 모두 적절한 답을 쓰지 못했다.	하

09 ㉠은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과정이므로, 해당 쟁점이 나타난 배경이나 이유(ㄴ)를 살펴보고 조사한 자료에서는 해당 쟁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ㄷ) 확인하는 질문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ㄱ. 사회적 쟁점을 고른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쟁점을 찾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ㄹ.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과정이므로, 자료에 다양한 해결안의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0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후에는, 주제나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평가하고 고쳐 쓰기 단계는 글로 표현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내용 전개의 원리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기 활동은 개요 작성하기 과정에서 수행한다.
④, ⑤ 소재를 선정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주로 글쓰기의 첫 단계에서 수행한다.

11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 쓰기는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혔고,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상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밝혔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미흡하게 썼다.	하

12 (가)와 (나)로 보아 이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경험과 깨달음의 구성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수필 갈래에 해당한다.

13 지역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 촉구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지역 방언을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우리는 소중한 우리말의 하나인 지역 방언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와 같은 문장을 추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 언어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첫 번째 문장의 '잃었다.'를 '잃어 가고 있다.'로 수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행히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1

356~360쪽

01 ② **02** ③ **03** ㉠ 사고 도구어 ㉡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 **04** ② **05** 전문어는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따라서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06** ⑤ **07** ⑤ **08** ④ **09** ③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① **15** ② **16** ② **17** ① **18** ④ **19** 예상 독자에 따라 근거 자료 및 쓰기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01 (나)는 문화에 따라 언어 관습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시원하다'를 음식이 차고 산뜻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도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문화가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를 잘 모르는 다른 나라나 문화권의 사람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02 '겨레말 큰사전', '남북 의학 용어 사전' 등의 편찬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03 사고 도구어는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로, 이를 학술적인 글이나 담화에 적절히 사용하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사고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가 기준	평가
㉠에 들어갈 말이 사고 도구어임을 밝히고, ㉡에 들어갈 사고 도구어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상
㉠에 들어갈 말이 사고 도구어임을 밝혔으나, ㉡에 들어갈 사고 도구어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중
㉠에 들어갈 말이 사고 도구어임을 밝히지 못하고, ㉡에 들어갈 사고 도구어 사용의 효과를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하

04 '발그레하다', '우두커니'와 같은 고유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나 감정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어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찾기 어렵다.

05 전문어는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따라서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전문어의 특징과 관련지어,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 문장 내외로 서술하였다.	상
전문어의 특징과 관련지어 서술했으나,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전문어의 특징과 관련지어 쓰지 못하였다.	하

참고 자료

전문어

의미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
특징	•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대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해당 분야 종사자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함.

06 ㉡, ㉢, ㉣에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 '(찾아)뵈다'라는 특수 어휘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07 (가)의 '여쭈다'는 '묻다'의 높임 표현으로, 청자가 아닌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8 '지원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에서는 청자인 상대를 낮추고,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와 주체를 모두 높이고 있다.
② 상대와 주체는 모두 낮추고, 객체를 높이고 있다.
③ 상대와 주체, 객체를 모두 낮추고 있다.
⑤ 상대와 주체를 모두 높이고 있다.

09 '음료'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왔습니다'라고 써야 한다. 반면 주문한 주체는 '고객'이므로 '주문하신'으로 높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이지 않는다.
② '색깔'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④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의 특수 어휘 '모시다'가 아니라 '데리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를 줄인 표현으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것이다.
⑤ '가격'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10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낼 때는 비격식체를 활용한다. 그림 속 화자는 상대방과 친분 관계를 맺은 후에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11 '서두르는'은 '-는-'이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보름달을 보기 위해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②, ③, ④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12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이는 선어말 어미는 '-더-'이다. ㉡은 동사의 어간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했다.

13 ㉡, ㉣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과 ㉥은 현재 시제, ㉢과 ㉤은 미래 시제이다.

14 '생각되어지다'와 '모여진'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또한 '생각'의 주체는 본인이므로 '생각되다'라는 피동 표현보다는 '생각하다'라는 능동 표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생각합니다', '모인'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보기〉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을 간접 인용의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그 말이 실제로 누군가 한 말임을 나타내어 내용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16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화제를 선정하는 것은 수필 등과 같은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7 '정후'는 신문 기사의 견해와 달리,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함께 논의해 본다고 했으므로, '정후'는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를 주제로 글을 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 제시된 글에는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를 강화해 준다는 내용이 논리적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19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예상 독자에 따라 근거 자료 및 쓰기 전략이 달라지므로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요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요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밝혔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예상 독자의 관심사나 요구 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하

대단원 평가 ❷ 361~365쪽

01 ④ **02** 글쓴이는 이전의 기술 발전이 느리고 한계가 있었다는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서서히'를 '더디게'로 고치고, 과학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을 바탕으로'를 '덕분에'로 고쳤을 것이다.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⑤ **08** ④ **09** ① **10** ⑤ **11** ② **12** '생각되어집니다'는 '생각합니다'로, '모여진'은 '모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 **13** ④ **14** ① **15** ④ **16** ⑤ **17** ② **18** ④

01 〈보기〉는 언어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다. 언어 공동체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반이 되며,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언어 관습이 확고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서서히'와 '더디다'의 사전적 정의는 각각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이다. 그리고 '덕분'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이전의 기술 발전이 느리고 한계가 있었다는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서서히'를 '더디게'로 고치고, 과학 지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을 바탕으로'를 '덕분에'로 고쳤을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고친 부분 2가지와 함께 고친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고친 부분과 고친 이유를 1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중
고친 부분을 찾았으나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3 문맥상 ㉡에 동질적인 집단에서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나뉘어 구분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단순하거나 등질인 것에서 복잡하거나 이질인 것으로 변함.'을 뜻하는 '분화'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변별: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림.
② 분석: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④ 분산: 갈라져 흩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⑤ 분배: 몫몫이 별러 나눔.

04 밑줄 친 어휘는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전문어로, 의미가 정확하고 자세한 편이다. 따라서 같은 집단 안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면 전문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전문어는 일의 효율성을 위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특정 계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구성원 내에서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은 은어이다.

참고 자료

은어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로, 은비(숨겨 비밀로 함.)의 기능을 발휘한다. 은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은어가 외부 집단에 알려져도 은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평범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장의 기능이라고 한다.

05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고유어라고 한다. 고유어는 감정이나 정서를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발그레하다'와 '우두커니'는 고유어이며, '버스'와 '벨'은 외래어, '찬란하다'와 '형언하다'는 한자어이다.

06 ㉤에 쓰인 '께서'는 주격 조사로,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은 격식체의 종결 어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7 (가)는 친분 관계를 맺기 전후로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변화를, (나)는 공식적인 상황의 여부에 따른 높임 표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참여자 간의 관계나 장면의 격식성 등의 상황 맥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높임 표현 역시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08 윗사람인 선생님은 높이고, 또래인 청자는 높이지 않은 표현을 찾으면 ④가 적절하다.

09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참고 자료

사건시와 발화시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말하고, 발화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말한다.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이고,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10 진행상은 주로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로 실현되며 완료상은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 '일어서 있다'는 이미 일어난 동작을 나타내며,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완료상에 해당한다.

11 피동 표현을 할 때는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혹은 '-되다'를 붙인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어지다'를 쓴다. ㉡은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12 '생각되어집니다'와 '모여진'에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 이중 피동이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에 '-아지다/-어지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생각한 내용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생각됩니다'에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생각되어집니다'는 '생각합니다'로, '모여진'은 '모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잘못된 피동 표현 두 개를 모두 찾아, 적절하게 고쳐 썼다.	상
잘못된 피동 표현 한 개를 찾아, 적절하게 고쳐 썼다.	중
잘못된 피동 표현을 찾았으나, 적절하게 고쳐 쓰지 못했다.	하

13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 표현, 종결 표현 등을 문장에 맞도록 적절히 바꾸고 큰따옴표 없이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써야 한다. 따라서 ㉠에는 '자기가', ㉡에는 '하겠다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가)는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의 누리 소통망의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는 반면, (나)는 누리 소통망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소셜 다이닝'과 같은 사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를 모두 읽고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5 (나)는 '소셜 다이닝'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다룬 기사이다. '소셜 다이닝'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쓰기 맥락을 고려했을 때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6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한 후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는지는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17 이 글의 서론에서는 지역 방언의 정의를 밝히고, 표준어와 서울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표준어의 정의와 효용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개요에서 서론의 중심 내용으로 들어갈 말로는 '지역 방언이 표준어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하다.

18 이 글은 지역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는 글이다.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는 소중한 우리말의 하나인 지역 방언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를 추가하여 글쓴이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단원별 종합 문제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368~375쪽

01 ② **02** 도치법,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불빛의 따뜻함, 위로의 힘)를 강조해 준다. **03** ⑤ **04** ④ **05** ② **06** 연필로 쓰면 잘못 쓴 부분을 지울 수 있듯이 삶의 실수와 잘못도 지울 수 있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③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⑤ **19** ① **20** ⑤ **21** ② **22** ② **23**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24** ⑤ **25** ②

01 '막무가내의 어둠'은 고난이나 시련을 뜻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에서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희망, 위로, 위안'의 긍정적인 의미를, '어둠',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③ '누군가 맞잡을 손'은 어둠 속에서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④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은 시련을 겪어 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희망과 의지가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02 (가)의 1연과 3연에는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우리말은 '주어-목적어-서술어'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목적어를 서술어 뒤에 두어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불빛의 따뜻함, 위로의 힘)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표현 방법을 썼으나, 그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3 (가)의 시적 화자는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것이라며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작은 지붕들이 어깨를 감싸 주었다'는 것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위로와 위안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친구와 함께 어깨를 감싸고 산행을 한 것은 아니다.
② '거대한 산줄기'는 '작은 지붕들'이 주는 힘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 시적 화자가 거대한 산줄기의 웅장함에 감탄한 것은 아니다.
③ '맞잡을 손'은 고난 속에서 타인의 위로와 위안이 힘이 되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아는 사람과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아니다.

④ '작은 지붕들'은 시적 화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 준 대상으로, 이를 보며 시적 화자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시적 화자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위로와 위안이 되었던 경험을 통해,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감정의 교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며,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의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은 이와 같은 시적 화자의 깨달음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시적 화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은 (가)와 관련이 없다.
② 모범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가)와 관련이 없다.
③ 정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가)와 관련이 없다.
⑤ (가)에서 손을 맞잡아 준다는 것의 의미는 타인에게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것이지 선도자적 존재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05 청유형 어미는 '-자, -세, -읍시다'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나)에서는 이러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연필로 쓰기'를 반복하여 관용적 태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③ '~ 하고자 합니다', '~ 때문입니다' 등의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바람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종결 어미 '-ㅂ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 하고자 합니다'라고 시적 화자의 바람을 먼저 제시한 뒤 '~ 때문입니다'라며 그 이유를 부연하고 있다.

06 (나)의 시적 화자는 연필로 시를 쓰겠다고 하며 이를 자신의 생애와 연관 짓고 있다.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라는 시구를 볼 때, 시적 화자는 연필로 쓴 시를 고쳐 쓸 수 있듯 삶에서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서와 관용의 너그러운 태도를 갖추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시적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상
시적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하였으나 표현이 다소 미흡하였다.	중
시적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7 촉각적 심상은 실제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을 말한다. 부드러움과 거침 등의 감촉이나 차가움과 따뜻함 등의 온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촉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향기가) 가득 넘치더라고'에는 이러한 촉각적 심상을 드러내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불빛의 따뜻함'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되고 있다.
②, ③ '막무가내의 어둠'과 '먼 곳의 불빛'은 모두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④ '향기론 영혼의 냄새'는 코로 향을 맡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08 (가)와 (나)에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시적 화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나'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가)는 연과 행이 구분되는 반면, (나)는 연과 행의 구분 없이 줄글로 서술되어 있다.
③ (가)에서는 '-리라', '-ㄴ지'와 같은 어미가 반복되어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나)에서도 '-ㅂ니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임에도 운율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불빛', '어둠' 등의 시각적 이미지와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나)는 '향기론 영혼의 냄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속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직유법은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대상을 '~같이, ~듯이, ~처럼' 등의 연결어와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직 향기론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에는 이러한 직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함축적 표현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삶의 목표 상실, 고난과 시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함축적 표현은 내포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불빛'이 사전적 의미 외에 희망이나 위로와 같은 내포된 의미를 전달한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함축적 표현은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밤'에서 시간적 의미 외에 시련이나 고난 등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함축적 표현은 독자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여 시적 정서와 의미를 더 풍부하게 전달한다고 했으므로, '연필로 쓰기' 행위를 삶의 태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10 '지민'과 '현욱'의 대화를 통해 '지민'을 낳기 전 출판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일을 했던 엄마의 삶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② 병렬적 구성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란히 배열된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병렬적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제시된 부분은 '지민'이 '현욱'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잦은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말줄임표가 쓰이지 않았다.

11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에서 '지민'이 엄마가 출판사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아내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를 통해 '현욱'이 아내가 남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아내의 인덱스를 지웠음을 알 수 있다.

③ '앞부분 줄거리'에서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욱을 만난다.'를 통해 '지민'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한 단서를 구하기 위해 아빠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④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라는 '지민'의 말에서 '지민'이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현욱'과의 대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에서 '지민'이 엄마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엄마가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 글은 '마인드'라는 가상의 과학 기술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는 과정에서 엄마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장치의 오류가 아닌, 아빠에 의해 엄마의 인덱스가 지워져서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이다.
② 이 글에서 미디어 회사들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출판사는 사양 산업이 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를 작가가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마인드'라는 과학 기술이 유족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에서 엄마가 마인드를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엄마가 과학 기술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민해 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13 이 글에서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서술자의 특징

「관내 분실」에서 서술자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하면서도, '지민'의 관점에서 내면을 드러내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민'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지민'이 관찰한 행동을 묘사하거나 그 인물의 말을 대사로 보여 주고 있다.

14 '출판사'는 엄마가 근무하던 직장으로, 엄마가 이를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하지는 못했으나 출판사만이 엄마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민'이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도서관'은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러 간 장소이다. '지민'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러 갔다는 점에서 살아생전 '지민'과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유품 상자'는 '지민'이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찾아본 물건이다. 하지만 '지민'은 그것에서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③ '책'은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것으로,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라는 부분을 통해 엄마의 이름이 적힌 이 종이책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는 인덱스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 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를 통해 '집'은 엄마가 언제나 무기력한 얼굴로 있었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소통 없이 집에만 있던 엄마의 삶이 제한되고 고립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 (나)에서 '하인'이 등장하여 '여자'가 '남자'에게 보여 주는 사진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남자'가 제지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극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남자'는 '나무'와 '고양이' 이야기를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남자'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하자, '남자'가 부유하다고 믿는 '여자'는 '남자'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나)에서 '여자'는 자기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임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사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여자'가 외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소품인 '쪽지'로 인해 '남자'가 사기꾼임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극의 초반부터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던 '여자'가 마음을 돌리려 한다.

16 '남자'는 가을이 되어 이파리들을 되돌려준 나무의 이야기와 시간이 다 지나가 생명을 돌려준 고양이의 이야기를 하며 '진실'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은 시간이 다 되면 가진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무와 고양이가 자연물인 것은 맞지만, 진실은 가진 것을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남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일 뿐 '남자'가 '여자'와도 이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남자'의 자랑거리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지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⑤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이미 '남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로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은 아니다.

17 '여자'가 제시한 석 장의 사진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자'가 현재 지닌 미모와 젊음도 사라져 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석 장의 사진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디졸브(Dissolve)는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는 장면 전환 기법이다. 〈보기〉는 '남자'가 자신이 깨달은 소유의 본질에 대해 '여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죄책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 사용된 디졸브 기법과 '남자'의 죄책감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신(scene)'을 구성 단위로 하고 있으며, '남자의 집 응접실'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낮'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표시하고 있다.
② 효과음을 삽입하는 이펙트 기법은 '하인'이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갈 것임을 암시하여 극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대상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클로즈업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여자'가 '남자'와 함께 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더욱 잘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④ 장면과 장면 사이에 화면을 삽입하는 인서트 기법을 통해 희곡에서는 대사로만 전달되던 나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19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글쓴이의 상상력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글쓴이와 서술자가 일치하므로 글쓴이가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예스러운 어투와 의태어를 사용하는 등 글쓴이만의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아름답게 여기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소설이나 시와 달리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노인의 화단 가꾸기를 소재로 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을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20 ㉤은 자연은 그 자체로 완성작이라는 자연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노인이 화초를 가공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글쓴이인 '나'가 노인이 조석으로 화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등의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② ㉡은 시들어 가는 화초를 본 노인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③ ㉢은 비를 맞기 전후의 화초들의 모습을 '노랗게', '시커멓게'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묘사한 것이다.
④ ㉣은 서화와 화초를 사랑하는 노인의 성향을 서술한 것이다.

21 ㉮는 노인이 자신이 조석으로 수돗물을 줘도 병이 낫지 않던 화초들이 비를 맞고 소생한 것을 보며 한 말로, 노인이 하늘의 물인 비만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노인이 비가 그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에서 비가 그친 후에 노인이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에서 노인이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보며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특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노인이 "그저 하늘 물이라야……."라고 말한 것에서 노인은 하늘의 물이 화초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2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자연은 신의 작품으로, 있는 그대로가 이미 걸작이기에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졸작, 미완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간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인간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는 없고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을 창조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③ 글쓴이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는 것이지 자연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가 인간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인간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⑤ 글쓴이가 노인이 가공한 나무를 보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겸손함의 표현인 동시에 노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23 글쓴이는 글의 끝부분에서 자연은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댈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24 이 글에서 '녹색 가치의 아름다움', 즉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은 다른 화초들과 달리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국과 옥잠화'는 노인이 돌보는 화초로, 인위적인 보살핌을 받는 소재에 해당한다.
②, ③, ④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화초들이므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25 글쓴이인 '나'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변형한 '석류나무'를 보며 불유쾌를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전구를 달아 '불꽃 나무'가 된 '겨울나무'를 보면서도 불유쾌를 느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재변'이라 생각한 것은 노인이 아니라 '나'이다. 따라서 '겨울나무들의 이상한 광합성'을 보며 '재변'이라 여길 사람은 '나'이다.
③ '나'는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인간이 자연을 불구가 되게 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노인이 비를 맞고 소생한 화초들을 기특하게 여긴 것은 병을 이겨 낸 화초들의 생명력에 대한 감동이다. 사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도 '광합성을 하고 있는 나무들'을 기특하게 여길 것이라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⑤ '광화문'은 자연물이 아니므로 '나'가 '광화문'이 사람들이 밝힌 불빛에 의해 '광화문(光化門)'이 된 것을 보며 인간이 자연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품격을 높이는 언어생활

376~379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가): 치르어야 → 치러야 (나): 생길른지 → 생길는지 **08** ④ **09** 대화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다.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보기〉의 행동에 대해 글쓴이와 글쓴이의 엄마는 좋게 생각하는 반면, 아이는 불편해한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담화 관습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15** ④

01 국어의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ㄱ).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 모음, 반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ㄴ). 국어의 음운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ㅁ).

오답 풀이 ㄷ.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므로, 음운에 해당한다.
ㄹ.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자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는 음운으로, '음소'라고도 함.
비분절 음운	소리의 길이, 고저, 억양과 같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음운으로, '운소'라고도 함.

02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고, 유음화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곡물, 굳는, 입는'은 음절 말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인 'ㅇ, ㄴ, ㅁ'으로 각각 발음되므로 비음화로 분류할 수 있다. '실내, 관리'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유음화로 분류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모음 탈락'이다. '못해[모태]'는 모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서서: 서-+-어서 → 'ㅓ' 탈락
② 나서: 나-+-아서 → 'ㅏ' 탈락
③ 따라: 따르-+-아 → 'ㅡ' 탈락
④ 아파: 아프-+-아 → 'ㅡ' 탈락

04 표준 발음법 제6장 제23항에서 제27항까지는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규정이다. '떫지'는 제25항 중 어간 받침 'ㅄ'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떨:찌]로 발음한다. 겹받침 'ㅄ'은 음절 종성에서 [ㄹ]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국밥'은 제23항 중 'ㄱ(ㄲ, ㅋ, ㄳ, ㄺ)' 뒤에 연결되는 'ㅂ'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빱]으로 발음한다.
② '껴안다'는 제24항 중 어간 받침 'ㄴ(ㄵ)'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껴안따]로 발음한다.
④ '갈등'은 제26항 중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갈뜽]으로 발음한다.
⑤ '할 적에'는 제27항 중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할쩌게]로 발음한다.

05 끝인사는 '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 또는 편지 따위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하는 인사'를 뜻하는 말로, '끝'과 '인사'의 합성어이다. '끝'과 '인사'는 각각의 뜻을 지닌 실질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끋인사]가 되었다가 연음 현상이 적용되어 [끄딘사]로 발음해야 한다.

06 '역도'의 발음은 [역또]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해당한다. '축하'의 발음은 [추카]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해당한다. '아니오'의 발음은 [아니오] 또는 [아니요]로, [아니요]는 반모음이 추가된 것이다. 반모음 첨가는 첨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신라[실라]'는 유음화가 일어나며, 유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 '커(크-+-어)'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② '열정[열쩡]'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며, 된소리되기는 교체에 해당한다.
③ '맏형[마텽]'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며,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에 해당한다. '좋아[조:아]'는 자음 탈락이 일어난다.
④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며, 구개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 '떼라(떼-+-어라)'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07 '치르다'의 어간은 '치르-'이다. 어간 '치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경우에는 'ㅡ'가 탈락되므로 [치러야]로 발음한다.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므로 발음과 동일하게 '치러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유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길는지'로 표기해야 한다.

08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표준 발음법 제27항)에 따라 '만날 사람'은 [만날싸람]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를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협력의 원리에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이 있는데, 그중 양의 격률은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에서 '동희'는 양의 격률을 고려하지 않고, '화성'이 요구하는 내용 외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양의 격률과 관련하여 '동희'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상
양의 격률과 관련하여 '동희'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양의 격률과 관련하여 '동희'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0 〈보기〉는 대화 함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고려할 때, '화성'은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며 축구부 입단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희'는 '화성'에게 위로나 격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11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③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공을 상대방의 덕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말했다고 볼 수 있다.

12 '후배'는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자는 '선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배'의 잘못을 지적해 '선배'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후배'에게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3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로 종결되는 문장 표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즉 글쓴이의 엄마가 동네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던 이야기를 실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들려주고 있다.
②, ③ (라)에서 글쓴이는 타인과의 소통이 지닌 가치를 역설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14 이웃과 주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며 소통하는 것에 대해 글쓴이의 엄마와 글쓴이, 아이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담화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평가
〈보기〉의 행동에 대해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정확히 서술하였다.	상
〈보기〉의 행동에 대해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혔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보기〉의 행동에 대해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15 속담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이다. 나머지 속담은 모두 말을 조심하는 태도와 관련 있다.

오답 풀이 ①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말.

3. 소통으로 엮는 삶

380~383쪽

01 ③ **02** ⑤ **03**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자기 성찰의 공간이다. **04** ④ **05** 서술어만으로 한 행을 구성하여, 독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06** ① **07** ⑤ **08** ② **09** ①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어휘의 수준, 내용의 수준 등 **15** ② **16** 읽기 목적

01 이 시에서 '긴 그림자'는 쇠문이 굳게 닫힌 '담'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시적 화자가 걷고 있는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읽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시적 화자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을 나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② 3연에서 쇠문이 굳게 닫힌 돌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적 상황으로 보아, 쇠문이 굳게 닫혀 돌담 저편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답답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5연에서 시적 화자가 돌담 길을 걷다가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⑤ 6연에서 시적 화자가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02 이 시는 상대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경어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고백적 어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이 시에서 '길'은 잃어버린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서 자기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평가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지어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상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지었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중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지어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4 이 시의 마지막 연은 쉼표(,)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삶의 이유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처음과 끝 부분을 비슷한 내용이나 구절 또는 문장으로 배치하는 방식인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의미가 서로 대비되는 시어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③ 자신의 의지를 독백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거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사어 '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를 강조할 뿐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5 ㉠은 주어나 목적어 없이 서술어만으로 구성된 행이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시적 화자의 상황에 주목하도록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의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밝혔으며, 독자 측면에서의 효과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상
㉠의 문장 성분과 독자 측면에서의 효과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중
㉠의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독자 측면에서의 효과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였다.	하

06 (나)는 윤동주의 「길」을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감상한 내용을 쓴 비평문이다. 즉, (나)는 (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07 (나)는 비평문으로, 이 글의 글쓴이는 윤동주의 시가 창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윤동주 시인의 고민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동주 시의 한계와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동주 시가 다른 예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8 이 시에서 '돌담'은 시적 화자의 현실적 세계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담 저쪽'의 시적 화자는 본질적 자아이고, '담 이쪽'의 시적 화자는 현실적 자아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쇠문'은 '돌담'과 같이 '담 저쪽'으로 가려는 시적 화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시적 화자는 '하늘'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내면적 결의를 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풀 한 포기 없는' 길은 황량한 길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시적 화자가 걷는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09 제시된 질문은 진로 탐색 전,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본격적인 진로 탐색 활동에 앞서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특기, 진로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정리해 볼 수 있다.

10 (나)에서 '선주'는 심리학이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그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선주'네 모둠은 자신들의 관심 분야인 '심리학'과 관련한 여러 글이나 자료를 함께 찾아보았다.
③ '선주'는 『더 알고 싶은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심리학에서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④ '선주'는 「마음을 움직이는 색깔의 마법」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심리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확인하였다.

11 (나)에서 '선주'는 읽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른 주제로 관심을 확장하여 새로운 자료를 더 찾아보려고 한다.

12 (다)의 '선주'는 글과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선주'에게는 선별한 정보를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13 제시된 대화 속 학생들은 모둠의 공동 관심사인 심리학과 관련하여, 자신이 읽을 책이나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모둠별로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찾은 후에는 그중 자신이 읽을거리를 선정하고 주제 통합적 읽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14 읽기 자료를 선정할 때는 그 자료에 쓰인 어휘의 수준과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기〉의 반응은 어려운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내용을 다룬 자료를 선정하여 겪은 읽기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15 읽기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방법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6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활동을 평가할 때는 읽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이나 자료를 수집했는지, 수집한 자료에서 읽기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였는지 점검한다. 읽기 결과를 공유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였는지 돌아본다.

4.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

384~387쪽

01 ② **02** 인간, 동물, 생명, 권리 **03** ① **04** ④ **05** ②, ④
06 ⑤ **07** ㉠: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 정책 토론 **08** ⑤
09 ③ **10** ⑤ **11** ③

01 (나)에서는 척추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신경 체계가 인간과 같다는 과학적 사실과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과 소리가 유사하다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과연 동물은 물건에 불과할까? 동물도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에서 인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저서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④ (라)에는 논증 요소 중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 있다.
⑤ (마)는 이 글의 결론으로 글쓴이가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2 (가)에는 글쓴이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인간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처럼 동물도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고 있다. 동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간처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이다.

평가 기준	평가
'인간, 동물, 생명, 권리'를 모두 순서대로 정확하게 썼다.	상
'인간, 동물, 생명, 권리' 중 세 개를 정확하게 썼다.	중
'인간, 동물, 생명, 권리' 중 두 개 이하를 정확하게 썼다.	하

03 ㉠에는 연역이 쓰였다. 연역은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이다. ①에는 '모든 의사는 의사 면허가 있다.'가 참이고, '민호는 의사이다.'가 참이며 '따라서 민호는 의사 면허가 있다.'라는 결론도 참인 연역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②, ⑤ 두 종류의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점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증 방법인 '유추'가 쓰였다.
③, ④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귀납'이 쓰였다.

04 〈보기〉의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된 후의 효과는 근거나 사례 없이 막연하게 서술하여'에서 학생이 읽은 카드 뉴스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과를 보여 주는 수치 자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보기〉는 논설문을 읽을 때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평가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읽을 때는 논증 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또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여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06 (다)의 반대 신문에서 찬성 2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1인당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리터 이상을 이용할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③ (나)에서 2022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 강우 실험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 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해야 하고, 이 화학 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녔다고 하였다.

07 사회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과 논제를 안내하고 있다. ㉠에는 이 토론의 논제인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에는 논제에 따른 토론 유형으로 '정책 토론'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토론 논제와 토론 유형 모두 정확하게 썼다.	상
토론 논제와 토론 유형 중 하나만 정확하게 썼다.	중
토론 논제와 토론 유형 모두 정확하게 쓰지 못했다.	하

08 (나)에서 반대 2는 인공 강우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 물질이 독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물질이 비에 포함되어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라고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하여 말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통계 수치는 국회 국정 감사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② 외국의 사례는 찬성 2의 반대 신문에서 제시되었다.
③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며 실용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석의 오류가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9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이어서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토론의 순서에 맞게 토론자를 지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이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10 이 토론 뒤에는 반론이 이어진다. 반론 과정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여 상대측 논증이 지닌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한다.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반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한다.

11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감정적 호소는 토론에서 지양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히 해야 토론이 이루어지므로 평가 요소로 적절하다.
②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므로 평가 요소로 적절하다.
④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토론의 기본 태도이므로 평가 요소로 적절하다.
⑤ 서로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지만 상대측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평가 요소로 적절하다.

5. 생각을 담는 말과 글

388~391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① **05** 되시겠습니다 → 되겠습니다. 가격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② **12** 논리적 순서의 원리 **13** ② **14** ④

01 (나)는 문화에 따라 언어 관습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다른 문화의 언어 관습이나 표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지역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현상을 보여 준다.
③ (나)는 문화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 관습이나 표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⑤ (가)와 (나)의 상황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관련이 없다.

02 〈보기〉는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고도화(高度化)'는 한자어로 '정도가 높아짐. 또는 정도를 높임.'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버스'와 '컴퓨터'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④, ⑤ '길라잡이'와 '시나브로'는 고유어에 해당한다. '길라잡이'는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고,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한다.

03 문맥을 고려했을 때 기술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하므로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의미하는 '진보'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② 개진: 기술이나 낡은 제도 따위가 점차 나아져 발전함. 또는 나아지게 발전시킴.
③ 급진: 서둘러 급히 나아감.
⑤ 진척: 일이 목적한 방향대로 진행되어 감.

04 〈보기 1〉은 객체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에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뵈다'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②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③, ⑤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④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쓰였다.

05 제시된 문장에서 '가격'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되겠습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평가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상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쳤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하였다.	중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치지 못하였다.	하

06 진행상은 주로 '-고 있다' 또는 '-아(어) 가다' 등으로 실현되고, 완료상은 주로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 등으로 실현된다. ③의 첫 번째 문장은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이 실현되었고, 두 번째 문장은 '-아(어) 있다'를 통해 완료상이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장은 완료상, 두 번째 문장은 진행상에 해당한다.
② 두 문장 모두 진행상에 해당한다.
④ 두 문장 모두 진행상에 해당한다.
⑤ 두 문장 모두 완료상에 해당한다.

07 ㉡은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문장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③ ㉠은 행위의 대상인 '그릇'이 주어가 되는 피동문이다. '깨다'의 어간에 '-어지다'가 결합하였다.
② ㉡은 행위의 주체인 손녀가 주어인 능동문이다.
④ ㉠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에는 목적어 '그릇을'이 존재한다.

08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쓰는 반면,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한다. ⑤는 간접 인용이므로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이중 피동이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동사에 '-아지다 / -어지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중 피동 표현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셰익스피어는 모두 한 번쯤 들어 보셨죠?', '오늘 '고전 산책' 강연과 함께하시면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에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한 주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중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안녕하세요?' 등에서 비격식체의 종결 어미를 확인할 수 있다.

10 이 글은 누리 소통망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주고, 인간관계를 강화해 준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 '누리 소통망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가 적절하다.

11 이 글의 글쓴이는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보이드와 엘리슨의 견해를 글의 도입부에 제시하고 있다.

12 연역이나 귀납과 같이 일반적 전제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열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논리적 순서의 원리라고 한다. [A]에서는 논리적 순서의 원리(귀납)를 사용하여 소셜 다이닝 문화와 산불 이재민 돕기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누리 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13 이 글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하며, 예상 독자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표현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ㄷ. 보고서를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ㅁ. 시와 같이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14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달해야 하므로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도 설 자리를 잃었다.'를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도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로 수정했을 것이다.

MEMO

MEMO

MEMO